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스포츠로 아시아를 하나로 만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
2014년 인천을 기대하십시오

The 17th Incheon
Asian Games
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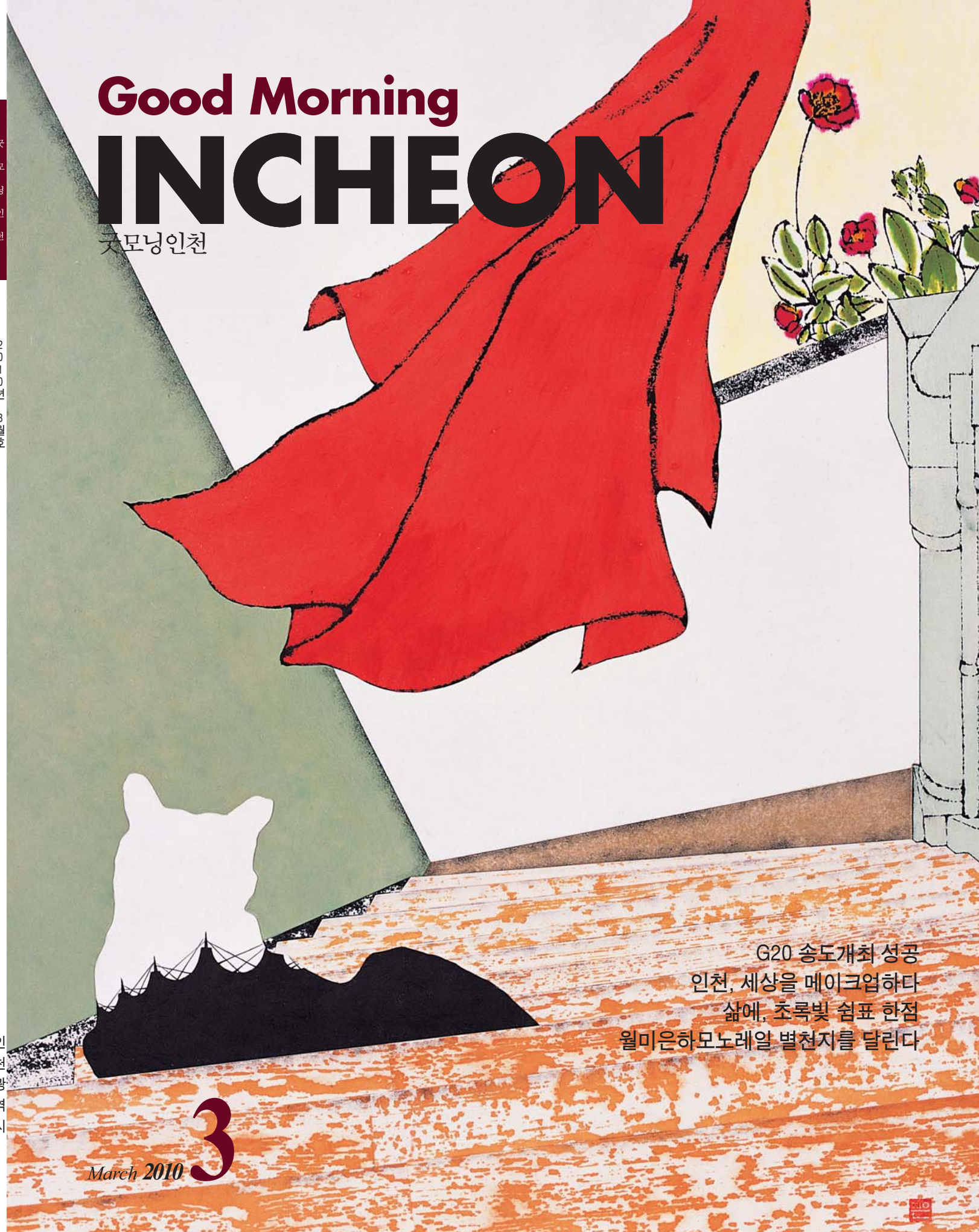


2010년 3월

인천광역시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



G20 송도개최 성공
인천, 세상을 메이크업하다
삶에, 초록빛 씬표 한점
월미은하모노레알 별천지를 달린다

March 2010 **3**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

CONTENTS

2010. 03 Vol.195



°발행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 2010년 3월 1일

°발행인 .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 공보관 조동암

°편집장 . 유동현(뉴미디어 팀장)

°취재 . 편집위원 이용남, 정경숙, 김윤경

°사진 .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 성광디자인(주)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 ☎ 032-440-8306



- 03 2010窓 우리는 지금 '맞선' 중
- 04 Focus 2010 G-20 첫 회의, 송도에서 성공개최
- 06 Special Theme 인천화장품, 세상을 메이크업하다
- 10 Green Incheon 삶에, 초록빛 심포 한점
- 14 Green Life 싱그런 흙냄새 '주말엔 나도 농부'
- 18 Enjoy Incheon 공중 외출타고 별천지를 신나게 달린다
- 22 언더우드 첫발디딘 그 땅에 신촌 독수리 날다
- 25 Now Opening 유학, 인천으로 오세요!
- 26 국제학교1호, 송도국제학교 개교
- 28 Old but New 추억 담은 필름은 여전히 돌아간다
- 32 From 1950 to 2010 스크린에 비친 인천상륙작전
- 34 Culture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외
- 38 사람과 사람 '외국인종합상담소 자원봉사자 송타냐' 외
- 40 특별기고 바다와 섬의 도시, 인천
- 42 History 인천의 말 목장 이야기
- 44 시정뉴스 'PGA뉴송도시티챔피언십 9월3일 개최' 외
- 48 시의회뉴스 인도네시아 이스트자바주 '지방거버넌스과정' 참여 외
- 50 Info Box '2010 인천아시아이주민 축제'로 오세요' 외
- 54 독자마당 지금도 기억나는 내 짝궁 이야기
- 55 From Reader '나의 새로운 터전, 인천' 외
- 56 김치찰락 '민우야~너도 커서 모델할래?' 외
- 57 퍼즐 인천바로알기 퍼즐
- 58 영·중·일어로 인천배우기 봄, 봄, 봄이 왔어요~



28



우리는 지금 '맞선' 중

우리 사회는 이른바 '고용 빙하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 단계에 진입한 데다 구인난과 구직난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탓이다. 사회에 내몰린 청년들이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인천지역 우수중소기업 채용박람회'에는 청년실업난 속에서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인천지역 우수기업 30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리고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소기업 정보를 얻기 위한 청년 구직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February 7 - 28, 2010 Incheon,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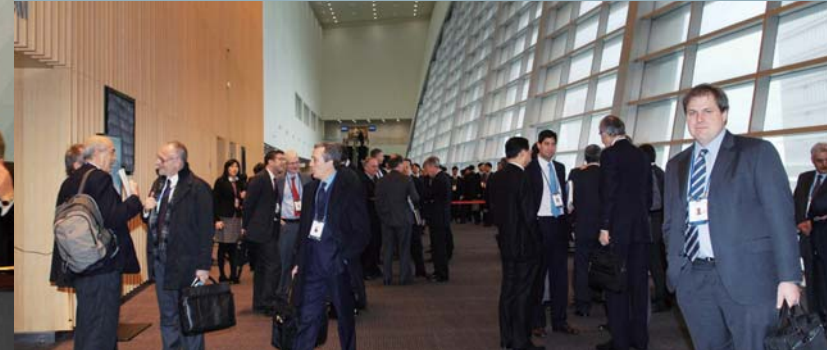


2010 G-20 첫 회의, 송도에서 성공개최

11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첫 일정인 G20재무차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월 27일, 2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20재무차관회의는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고, 인천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였다. G20재무차관회의 참석자들은 국제금융계의 내일을 이끌 차기 주역들로 형식상으로는 차관회의지만 내용상으로는 거물급회의였다.

이번 G20재무차관회의는 한국이 올해 G20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과 한국은행 이광중 부총재보가 공동의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G-20 Finance &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7개 국제기구 관계자 180명 참석

회의에는 G20국가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7개 국제기구 관계자 180명이 참가했다. 이 중에는 미국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과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중국의 이강 런민은행 부총재, 일본의 다마키 린다로 재무차관, 존 립스키 IMF 부총재,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사무차장 등이 포함돼 있다. 27, 28일까지 이틀일정으로 진행된 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평가작업과 함께 지난해 G20정상회의와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합의된 의제를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날인 27일에는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을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신흥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해 불필요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각국은 의견차를 보였다. 우리나라와 신흥개도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부 선진국들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또 각국은 지난해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회복세의 속도를 평가했다.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개혁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합의사항 이행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논의도 모색됐다.

NEATT전망대 등 투어

우리는 이번 재무차관 회의에 참석한 금융전문가 및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천을 보여주고 홍보하기 위한 투어를 실시했다. 현존하는 국내최고의 높이 68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의 전망대를 G20 재무차관회의에 맞춰 개관해 민간국제금융 전문가 및 미디어관계자들에게 인천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컴팩스마트시티관, 시내탑승투어를 실시해 동북아 허브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인천의 발전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에게 확인시켜 줬다.

한편 G20 재무차관 회의 결과는 세부 조율을 거쳐 4월 미국 워싱턴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회의에서 의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G**

인천화장품, 세상을 메이크업하다

따사로운 기운 따라 봄 메이크업이 女心を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다. 전국 500여 개의 화장품기업 가운데 85개의 기업이 모여 있는 인천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수도권을 배후로 한 거대시장을 품고 있으며 화장품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천의 화장품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을 메이크업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 엔프라니(주) · (주)소망화장품



여성들의 얼굴에 봄이 내려왔다

봄. 온 세상이 설렘으로 들쭉인다.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상쾌하다. 여기서 '톡' 저기서 '톡'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소리가 들린다. 여성들의 살결에도 봄이 내려앉았다. 입술은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고 두 뺨은 소녀마냥 발그레하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봄의 기운 따라 화사한 봄 메이크업이 女心を 흔들고 있다. 화장품은 아름다움과 자신감의 상징이자 여성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사랑받고 있다. 화장품협회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는 우리나라 500여 개의 화장품기업 가운데 85개의 기업이 모여 있으며, 지난해 화장품 생산액은 4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화장품 원료, 용기 및 포장, 디자인 업체까지 더하면 화장품 관련 생산액은 연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천에 화장품산업이 발달한 이유는 수도권이라는 대형시장이 있고 서울과 가까워 우수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품고 있어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산업을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원료를 확보하고 수출하기 쉽다. 또 원료개발 업체와 용기제작 업체, 연구소 등의 화장품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최근 화장품기업들이 잇따라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문을 열고 있다.

화장대 위, Made in Incheon

평소 쓰던 화장품이 알고 보니 'Made in Incheon'이라면 매우 반가울 것이다. 인천에는 85개의 화장품기업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세상에 아름다움을 퍼트리고 있다. 그 가운데 (주)소망화장품과 엔프라니(주)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인천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다.

'20대여 영원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잘 알려진 엔프라니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엔프라니는 1997년 인천에 공장과 연구소를 준공했으며, 1998년 엔프라니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화장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연 30, 40%의 매출성장을 이루고 올해 화장품 850억원 어치를 생산하며, 소비자가 인정하는 화장품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인 명품화장품 꿈꾸다

인천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 유희창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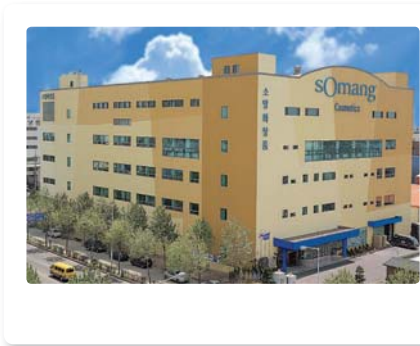
“국제도시 인천은 국내 화장품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꿈을 이루어 줄 도시입니다. 머지 않아 세계적인 화장품이 인천에서 만들

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인천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 회장 엔프라니(주) 유희창(57)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확신이 넘쳤다. 인천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INCIA)는 인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44개 화장품기업과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해 만들었다.

“인천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는 신기술 개발과 브랜드 육성, 연구 등을 지원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천의 화장품산업이 명품산업으로 자리 매김해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세계화장품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 이어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적인 명품화장품 못지않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인천의 화장품산업이 발전하여 전 세계에 아름다움을 퍼트릴 날이 멀지 않았다.



소망화장품은 1992년 창립 이후 연매출 1천400억원을 내는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인천공장은 최첨단 설비의 생산시설과 물류창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실 등을 자랑한다. 남성용 컬러선과 스킨샤워, 냄새가 나지 않는 염모제 등은 꾸준히 사랑받는 소망 화장품만의 차별화된 제품이다.

얼굴 없는 실력자들에게도 주목해야 한다. 인천에는 대형 브랜드기업은 물론 제품을 만들어 브랜드기업에 납품하는 OEM/ODM 화장품 제조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염모제와 퍼머넌트웨이브 등 헤어제품 생산이 주력을 이루는 (주)서울화장품은 직원이 100여 명이 넘는 대표적인 화장품제조 중소기업이다. 서울화장품은 2002년 부천에서 화장품산업 기반이 잘 갖춰진 인천으로 터를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인천에는 (주)엔에스텍, (주)안느, (주)나투젠, (주)UCL, (주)다쏘엔컴퍼니 등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있다. 이들 기업은 유명기업에化妆품을 납품하는 것을 넘어, 연구소를 세우고 자사 브랜드를 개발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인천에는 화장품 제조뿐 아니라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산업도 발달해 있다. 그 가운데 (주)바이오에프디엔씨는 피토케미칼 융합 펩타이드, 식물 켈러스, 줄기세포배양액 등 바이오소재를 개발하며 인천의 화장품산업을 빛내고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Make up

인천이 화장품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우리시도 화장품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인천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INCIA)를 발족하고, 화장품발전포럼을 열어 인천을 세계화장품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 역시 미래지향적인 신 성장동력사업으로 화장품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먼저 화장품산업을 뷰티산업을 넘어 바이오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개발에 주력기로 했다. 코스메슈티컬은 의약적

으로 검증된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으로, 향후 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송도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해 화장품 연구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고 화장품기업의 경영, 인력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각종 사업에 인천의 화장품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9월 인천의 화장품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화장품 브랜드인 SK II, 시세이도, 가네보 등을 생산하는 일본의 기업을 방문해 기술 발표회를 연다. 11월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 화장품 박람회 'Cosmoprof Asia 2010'에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처음 열린 화장품포럼은 올해부터 국제포럼으로 치러진다. 해외 화장품업체의 트렌드를 지역기업들에 전하기 위해 포럼을 분기별로 열고,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천발전연구원 상반기 정책과제로 화장품산업 발전계획안을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에 지역 특화산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연구비와 산·학·연협동기술 지원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화장품 연구단지와 화장품 전문 매장, 뷰티 서비스숍 등을 아우르는 '코스메틱 밸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화장품산업은 겉모습은 물론 마음까지 아름답게 물들이는 의미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인천의 화장품산업이 발전하여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을 메이크업할 날이 멀지 않았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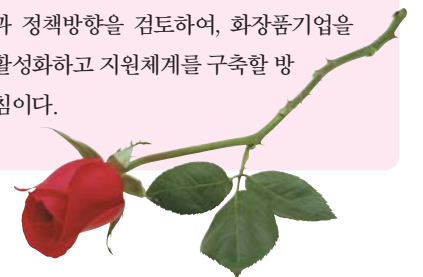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로망 동동구리무에서 바이오화장품까지



어릴 때 엄마 품에서 나던 은은한 화장품 냄새는 아직도 기억 속에 짙게 배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여성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192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으로 기록되는 '박가분'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었다. 하지만 박가분에 들어간 납 성분이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자리를 '동동구리무'가 대신하게 된다. 방물장수들이 거리에서 풍악을 울리며 팔던 동동구리무는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 후 6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아이세도와 마스크라, 립스틱 등이 출시되고 최초의 남성 화장품 포마드가 등장했다. 그리고 70년대 본격적인 성장기를 거쳐 80년대 컬러 TV가 등장하면서 화려한 빛깔의 색조화장품이 인기를 모으게 된다. 아름다운 화장품 모델이 각광받던 시대도 이때다.

현재는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능성을 내세운 화장품이 대세다. 오늘날 화장품기업들은 새로운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앞다투어 세상에 내놓고 있다. 우리시도 이에 맞추어 바이오화장품기술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시는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바이오화장품 기술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화장품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삶에, 초록빛 침포 한점

행복은 높이 솟은 빌딩 숲 안에서 원하는 바를 모두 누린다고 하여 오지 않는다. 사람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하다. 그래서 갑갑한 빌딩 숲 속에서 만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는 더 반갑다. 삶에 한줄기 여유를 비추는 도심의 녹색 공간으로 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푸른 우리집, 푸른 일터

우리가 꿈꾸는 자연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자연은 지금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도심에 푸르게 빛나고 있다. 우리시는 인천을 생명이 숨 쉬는 녹색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도심 속 생명의 숲 1천만㎡'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옥상과 가로 녹지, 방음벽 등 시민들이 생활하는 도심 공간을 초록으로 물들이고 있다.

인천시청 민원동 옥상에는 비밀스러운 정원이 펼쳐져 있다. 1천 104㎡에 이르는 옥상에는 소나무, 눈향나무, 장미 등 꽃과 나무가 싱그럽게 자라고, 지압로와 테크가 있어 여유로운 휴식을 안겨준다. 이 작지만 아름다운 도심 속 오아시스는 시청을 찾은 시민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동구 화수동에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사옥 옥상에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 있다. 푸르게 자라난 나무와 탐스럽게 핀 꽃, 넓게 깔린 잔디 그리고 해를 가려주는 파라솔과 안락한 테이블까지. 발 아래로 복잡한 도심을, 머리 위로는 탁 트인 하늘을 보며 마음에 침포 한점을 찍어본다.

시커먼 연기와 먼지로 대변되던 공장도 푸르게 변하고 있다.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우림 라이온스밸리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적으로 지어진 아파트형 공장이다. 건물 앞에 대형 분수광장과 조경공원이 있고 건물 안에 중정가든과 옥상정원이 있다. 또 정원에 나무와 풀이 잘 가꿔져 있고 벤치와 골프 퍼팅장 등이 있

어 피로에 지친 직장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아파트에도 삭막한 콘크리트 대신 폭신한 흙이 덮이고 꽃과 나무가 싱그러워지고 있다. 논현지구 에코메트로, 송도국제도시 더# 주상복합 등 이미 인천의 많은 아파트에 녹지가 조성돼 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아파트 역시 실내정원과 옥상정원을 입주민을 위한 혜택으로 내세우고 있다.

생태학교, 도심도 푸르게 푸르게

회색빛 공간에 갇혀 있던 학교도 푸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시는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42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다. 숲이 푸르게 자라고 맑은 연못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숲을 이용한 교육과 식물재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교실에서 자연의 품으로 이끌고 있다.

시는 학교 생태숲 조성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자연이 잘 가꿔진 학교를 대상으로 '인천 푸른학교상'을 시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시상식을 연 '제3회 푸른학교상'에는 부광초등학교가 금상을, 송림초등학교가 은상을, 석천초등학교가 동상을 받았다.

부광초등학교는 '가꾸는 행복, 나누는 기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녹색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부광초교는 학교 내에 미니식물원을 가꾸고 꽃과 채소, 나무 등 다양한 식물을 기르며 아이들의 마음을 초록으로 물들이고 있다. 또 자연 그리기, 글





1	2
3	4
5	6

- 1 · 5 송도센트럴파크
- 2 석천초등학교 생태숲
- 3 · 4 · 6 나비공원



짓기, 종이접기 대회를 열고 씨앗과 모종을 나눠주며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송림초등학교는 '솔빛 고운 수목원'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힘을 모아 정성껏 가꾸고 있다. 송림초교의 아이들은 손수 꽃을 피우고 식물을 매만지며 자연과 하나되는 착한 마음을 키우고 있다. 또 나무와 대화하기, 실내화분 가꾸기, 숲 속의 생물관찰하기 등 다양한 생태숲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있다.

석천초등학교는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정자와 연못이 있는 생태숲을 가꾸고 있다. 그리고 녹색환경봉사단을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체험 중심의 녹색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연이 푸르게 펼쳐진 이곳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도심의 숲, 한줄기 여유를 비추다

시는 회색도시를 초록빛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곳을 찾아 매년 인천조경상을 수상하고 있다. '제6회 인천조경상' 공공부문 최우수상에는 인천나비공원이, 우수상에는 송도센트럴파크가 수상했다.

숲이 싱싱 자라고 어여쁜 나비가 노니는 생태숲 '인천나비공원'은 부평구 청천동 장수산 일대에 50만㎡로 드리워져 있다. 나비공원에는 체험학습, 땅속탐험, 기획전시실로 이뤄진 자연 교육센터와 살아 있는 나비를 만날 수 있는 나비생태관이 있다. 나비공원에 가면, 어린시절 아름다움이 담나 잡으려고 하면 하늘높이 솟아버리곤 했던 나비가 눈앞에서 하늘하늘 날갯짓을 한다. 나비공원에는 또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다양한 식물과 만날 수 있는 습지원이 있다. 그리고 경작지, 논두렁 등에 작물을 재배하며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흙의 정원, 사계절 야생화와 음식식물을 전시하는 들꽃동산 등이 있다 (인천나비공원 ☎ 509-8824).

송도센트럴파크는 열심히 일한 비즈니스맨들의 쉼터이자 도시인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다. 송도국제도시 1·3공구에 41만천㎡로 펼쳐진 송도센트럴파크는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했다. 이 공원의 가장 돋보이는 요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이 만든 수로로, 이 길을 따라 수상택시 '미추홀호'가 하루 두 번 운행한다. 또 동고서저형인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에 따라 공원을 해안, 구릉, 계곡, 산악지대 등으로 다양하게 형상화했다.



우리시에는 송도센트럴파크 외에도 송도중앙공원, 월미공원, 인천대공원 등 10여 개의 공원이 푸르게 드리워져 있다. 그 가운데 해돋이, 미추홀, 새아침, 신송, 달빛공원으로 이뤄진 송도중앙공원은, 센트럴파크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숨통을 트는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해가 솟아오르는 송도를 상징하는 해돋이공원은 푸른 언덕과 정원이 펼쳐져 있고 드넓은 연못이 공원을 아우른다. 신송공원은 산책길 따라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어 고즈넉히 거닐기 좋다. 새아침공원은 자전거도로가 있고 테니스장과 X-game장 등 스포츠시설이 설치돼 있어 마음껏 땀 흘릴 수 있다. 생태공원인 달빛공원은 송도국제도시 1·3공구 외곽부터 송도1교를 지나는 길로, 밤하늘의 달빛처럼 꿈과 낭만이 깃들여 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중앙에 있는 전통공원 미추홀공원은 인천의 역사와 한국의 전통적인 정취가 짙게 배어있다.

월미공원도 자연이 숨쉬는 휴식처로 사랑 받고 있다. 월미공원은 50여 년간 군사통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10여 년 전에야 속살을 드러냈다. 그로 인해 숲이 무성하고 259종에 이르는 식물과 각종 동물들이 살고 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에서 하나뿐인 해양생태공원으로 폐염전 일대에 해양생태전시관과 야외관찰 학습원 등을 조성했다. 또 갈대숲과 갯벌을 따라 생태탐방로와 자전거도로가 있고, 풍차가 돌아가는 이국적인 풍경이 인상적이다. 문득, 하릴없는 삶이 팍팍하게 느껴진다면 인천의 녹색공간으로 가자. 그 곳에는 삶의 여유가 푸르게 드리워져 있다. **G**

'생명의 숲'에 둘러싸인 도시

우리시는 '도심 속 생명의 숲 1천만㎡' 사업으로 도시의 회색빛을 지우고 초록빛을 칠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기준 인천시의 시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13.5㎡로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에 가까워졌다. 시는 2006년 7월부터 4개년 계획으로 '도심 속 생명의 숲 1천만㎡'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최종 목표는 시민 1인당 녹지 3.3㎡, 1인당 공원 면적 11.2㎡를 조성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싱그런 흙냄새 ‘주말엔 나도 농부’

바야흐로 농사의 계절이 왔다. 겨우내 얼었던 땅들이 녹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등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다. 선인들은 3월 춘분을 전후해 한해 농사를 준비했다. 도시의 콘크리트 숲 속에 사는 도시민에게 농사는 이제 자연친화적인 삶으로 더없이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녀들에게는 땅을 개간하고, 비료를 주는 일을 함께하며 농사를 배우고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농협 제공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이 도심의 자투리 땅이나 노는 땅을 빌려 채소와 농산물을 길러먹는 것을 말한다. 내손으로 지은 농사로 농약을 치지 않아 그야말로 웰빙식품이다. 땅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어준다. 수확한 채소양이 많아 두고두고 먹어도 못 먹어 자연스럽게 이웃, 친지, 친구들과 나눠먹게 된다. 이웃에게 나눠주는 기쁨은 덤이자 행복이다. 주말농장은 자녀의 놀이터이자 자연학습장이며, 가족나들이 공간이다. 임차료, 모종값, 농기구 구입, 오가는 교통비 등이 들긴 하지만 들인 돈에 비해 얻는 게 많다.

땅의 생산력 놀라워, 이웃과 나눠먹어도 충분

전문가들은 초보자들의 경우 처음 의욕이 넘쳐 한두달 열심히 가다 풀매기 등 손길이 많이 가는 5월쯤 되면 정작 주인이 찾지 않아 풀밭이 되는 텃밭이 많다며 가능한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풀이 나기 시작하는 5월부터 풀매기가 중요하다. 무성하게 자란 풀이 농작물의 생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농사를 크게 지으려는 욕심은 금물이다. 9.9~16.5㎡ 정도면 충분하다.

농사를 지어보면 알게되는 놀라움은 땅의 생산력이다. 상추, 쪽갓, 고추, 열무, 시금치 등 6~10가지 정도의 작물을 시기를 달리해가며 심으면 다양한 종류의 싱싱하고, 맛있는 채소를 식탁에 올릴 수 있다. 봄부터 여름까지 상추, 고추, 열무, 시금치 등을 심고 7월부터는 땅갈이를 하고 겨울을 준 다음 김장용 무우, 배추, 알타리 등을 심어 11월경 수확한다. 16.5㎡ 정도의 밭 규모이면 4식구 김장을 담아먹기엔 충분한 배추, 무 양이 나온다.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10여 가지의 농사기구가 필요하다. 농사를 짓기 전에 땅갈이, 비료주기 등은 대부분 농장주들이 해주기 때문에 농사꾼들은 물뿌리개, 호미, 모종삽 등만 준비하면 된다.

시기별 모종심기도 다르다. 3월엔 감자를 심으면 좋다. 심기전에 물을 충분히 준 다음 감자의 자른 부위가 밑으로 가고 눈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감자가 발아한 후에는 싹을 1~2개만 남겨서 키우면 아주 큰 감자를 수확할 수 있으며, 수확은 7월 중순경 끝낸다.

상추는 파종전에 3~4시간 정도 물에 담가놓았다가 가라앉은 씨앗을 골라 뿌린다. 골 간격은 20cm 정도면 된다. 씨앗을 뿌린 다음 흙은 0.5cm 이하로 얇게 덮어준다. 싹이나고 본엽이 1~2매 났을 때 5cm간격으로 1차 솟아준 후 2차 솟아온 본엽이 3~4매나면 10cm간격으로 1개씩 남기고 모두 제거한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농부 3월중순부터 모집

우리시에서도 주말농장과 비슷한 형태인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민들에게 농부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3월에 도시농부들을 모집하고 4월부터 농사교육을 시작한다. 농장의 위치는 남동구 남촌동(4천㎡)과 계양구 동양동(4천㎡)으로 각 120명씩 24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인천시민으로 일반 160명, 3세대가정 40명, 다문화가정 40명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선 초보 도시농부들에게 농작물 파종, 모종심기 등 기초적인 농사짓는 방법을 교육하고 체험장 운영, 체험사례발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중간평가 시간도 갖는다. 1인당 16.5㎡ 정도 분양된다.




해맑음농장은 유치원, 초등학교생들에게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농작물 따기 체험이 가능하다. 감자, 고추, 시금치, 고구마, 방울토마토 등이 자라는 것을 보고 느끼는 산교육이 가능하다. 체험학습은 일주일 전에 연락하면 된다.

농촌체험하며 농촌을 배우는 '팜스테이'도 인기

농사를 통해 농부가 되는 경험 말고도 농촌 체험을 통해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다. 강화용두레마을, 강화 아침가리마을, 웅진 푸른벚말, 웅진 장봉마을 등 일명 팜 스테이(Farm stay)이다.

이중 강화 용두레마을은 강화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전국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용두레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용두레질 노래를 배우며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에 있는 천수답에 퍼올리기 위해 고안된 신기한 물푸기 용두레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농촌체험으로 수확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웅진 장봉마을은 섬이지만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섬마을이다. 포도가 생산되는 포도의 마을답게 가을철이면 다양한 포도체험이 가능하다. 

농협에서도 주말농장을 운영한다. 3월에 분양을 시작해 4월부터 주말농장을 시작한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도 농장주들이 땅을 개간하고 비료를 주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만들어 텃밭을 제공한다. 텃밭분양가는 3.3㎡당 1만원 내외 기준. 신청자들은 주로 가족단위가 많고, 농협의 우수고객들에게도 분양된다. 농작물따기 체험학습이 가능한 농장도 있다.

★ 인천지역 주말농장

농장명	주소	농장주 연락처
새농민회주말농장	남동구 도림동 584-24	011-336-3298
청년부주말농장	남동구 남촌동 211-24	017-355-9760
간재울농장	서구 검암동 453-2	019-261-2318
굴현웰빙주말농장	계양구 굴현동 338	011-477-4571
동검리농장	강화군 길상면 동강리 323	017-322-2121
진실농장	남동구 수산동 279-25	011-254-8373
꽃외농장	서구 시천동 3-4	011-443-1944
계양산술밭주말농장	계양구 대남동 180-17	011-9965-6798
전원주말농장	계양구 을류동 102번지	011-447-4571
삼랑성농장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60-3	011-790-5006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	서구 경서동 542-3	899-0370
해맑은농장	서구 경서동 542-3	011-476-8261 246-8261

Tip★ 주말농장 에티켓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도시민들이 많아지면서 텃밭을 이용할 때도 에티켓이 필요하다. 주말에 사람이 몰리고, 농기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 주말농장 이용 시 서로 주의해야 할 에티켓을 알아본다.

- **쓰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 **가져온 쓰레기는 꼭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수거함에 버린다.**
- **농작물에 물을 준 후 틀어놓은 수도물은 잠근다.**
- **남의 작물에 손대지 않는다.**
- **농약을 뿌릴 때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하고, 다른집의 농작물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풀매기를 인해 벌레가 생기면 다른 텃밭에도 피해를 주므로 제때 풀뽑기를 해줘야 한다.**



집 안에 '초록' 들여놓다

선물로 들어온 과일바구니에 색색의 아프리카제비꽃을 넣어 만든 꽃바구니.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담은 스티로폼 상자에 상추씨를 뿌려 만든 채소정원. 깨진 항아리 뚜껑에 작은 선인장을 모아심어 만든 접시정원 등.

땅 한뼘 없이도 나무와 꽃이 자라는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의 활력을 주고 실내에서 초록의 화사한 식물을 보고 즐기며 가꿀 수 있는 '생활원에 교실'을 운영한다.

생활원에 교실은 집안에서 난, 선인장 등 화분을 가꾸는 시민들이 늘고, 생활공간에 녹색식물을 들여놓아 아파트 등의 삭막

한 공간에도 초록색을 보며 건강도 증진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교육기간은 4~5월이고, 교육인원은 18회 360명이다. 교육내용은 식물번식 및 재배방법, 종자파종 삽목실습, 공기정화 식물의 기능 및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 디쉬가든(소정원) 만들기 이론 및 실습, 선인장·다육식물 재배 및 관리, 테라리움 만들기 이론 및 실습, 난의 생리적 특성, 석부작 만들기 실습, 허브식물의 이해, 허브를 이용한 모듬화분 만들기, 화훼장식 기초이론, 꽃바구니 만들기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 427-5959**



요란한 기적소리는 없다.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온 기차가 달빛에 물든 월미도에 봄을 싣고 왔다. 3월 26일 월미은하모노레일의 탄생으로 월미도가 활기차다. 형형색색 화사하게 미끄러지는 꼬마기차는 하늘과 어깨를 마주하고 유유자적 월미도 유랑에 나선다. 바다와 산, 사람을 담고 있는 월미도는 별천지. 월미은하모노레일아, 외줄타고 별천지를 신나게 달려라. 달려~

공중 외줄타고 별천지를 신나게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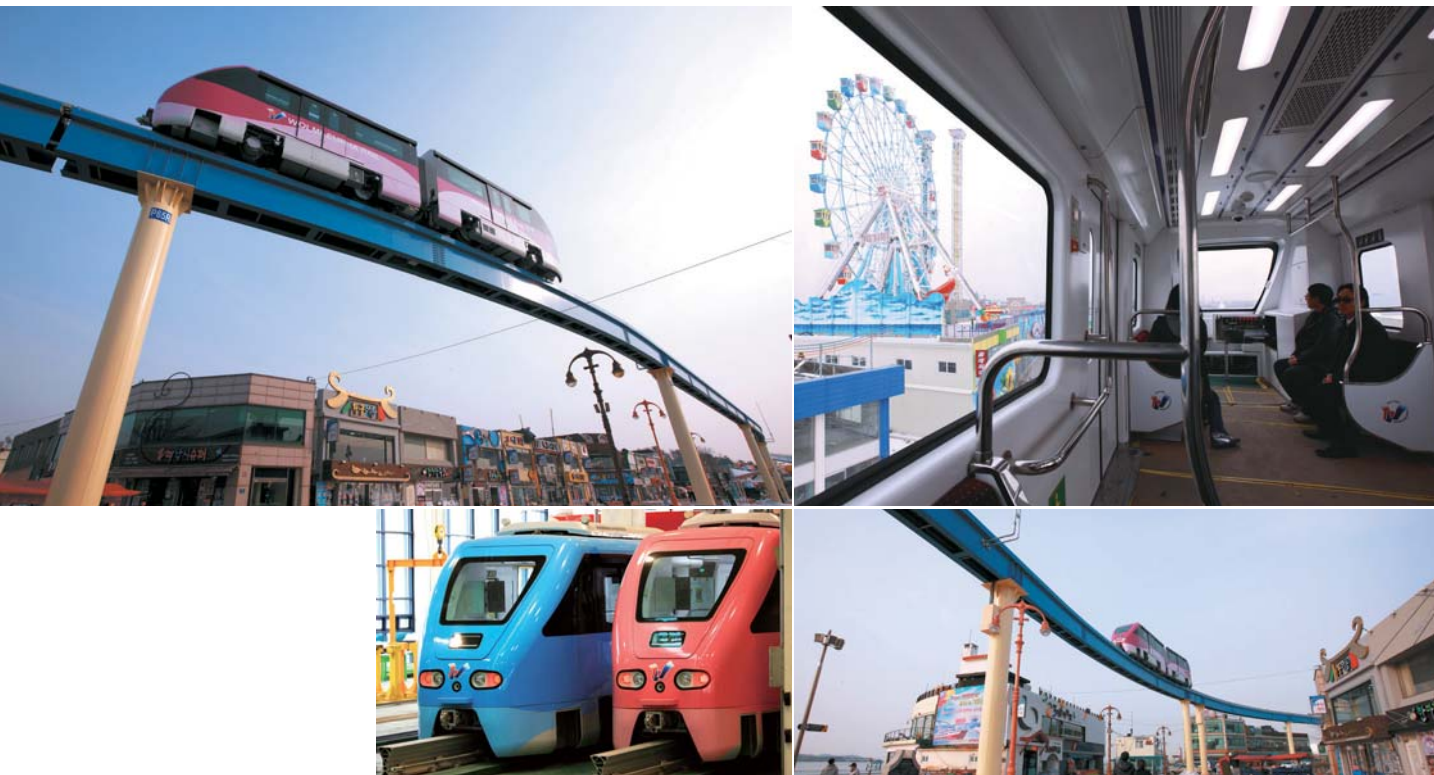
양중맞은 작은 체구의 월미은하모노레일은 거침이 없다. 월미도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추억을 담아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번덕스러운 하늘, 거리를 지나는 이들의 표정도 놓치지 않는다. 드넓은 서해 바다를 품을 만큼 통 큰 꼬마기차는 인천은하역을 떠나 월미공원역, 이만사박물관역 등 6.1km를 순환하며 힘차게 달린다.

글 김민영 자유기고가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월미도 여행의 출발 ... 인천은하역

1호선 전철의 종착 인천역에 서면 또 다른 출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의 굴곡진 역사가 배어있는 월미도로 들어서는 입구로 항구도시의 맛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주변에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파라다이스호텔(구 올림포스호텔)과 최초의 서양식 공원으로 자리 잡은 자유공원, 자장면 탄생지 차이나타운 등이 있어 과거의 인천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역사 속 한 장면, 한 장면들은 거리 곳곳에 남아 현재 진행 중이다. 열려있는 시간을 뒤로하고 은밀했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노레일의 출발지 인천은하역은 배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항구도시를 상징하며 석탄을 나르던 철로 위에 배 한척을 띄웠다. 인천은하역을 출발하자마자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공장들의 거대한 지붕들이 내려다보인다. 지붕과 지붕사이 조용한 듯 분주한 사람들이 지나다. 낡고 오래된 식당과 선술집들이 나란히 줄지어 났다. 고단한 어깨를 저녁이면 한잔의 술과 이야기로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는 곳. 바다를 가르고 왔을 산처럼 거대한 배들도 갑문 한쪽에서 엔진을 끄고 숨을 돌린다. 땅을 딛고 걸었던 익숙했던 그 길이 짧은 순간 낯설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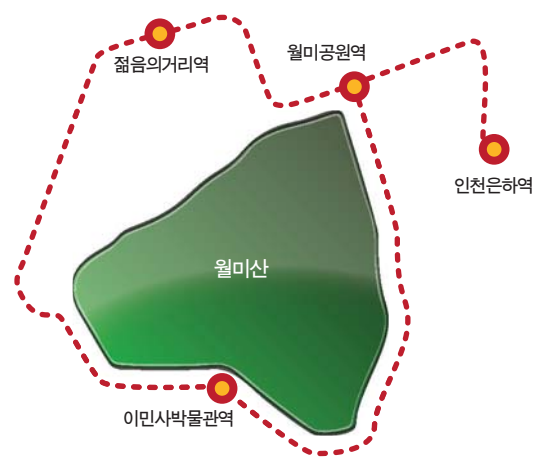
조선시대로 간다 ... 월미공원역

꼬마기차가 지나는 4곳의 역은 나름대로 테마를 담고 있다. 다양한 모습만큼 이야기가 많은 월미도는 사랑과 정열, 과거와 미래가 숨을 쉰다. 심플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월미공원역은 월미은하모노레일 운영의 심장이라 해도 좋을 만큼 핵심 시스템이 갖추고 있다. 이곳은 꼬마기차들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다. 기차가 잠시 쉬거나 점검받으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 관제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부터 레일은 하나로 연결되어 순환된다. 레일은 외발이지만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는 커다란 바퀴와 레일을 잡고 가는 작은 바퀴의 힘으로 운행된다. 월미도를 향한 본격적인 외발 여행을 떠난다. 역을 출발하자 눈과 맞닿은 곳은 월미전통공원. 조선시대의 가옥과 정원이 고즈넉하게 펼쳐져 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한 월미전통공원은 모양새가 선비처럼 반듯하다. 차창 너머 보이는 조선시대의 시간이 월미산 입구를 지난다. 50여 년의 긴 시간을 담을 쌓고 지낸 월미산은 언제나 푸르다. '생태의 보고' 월미산에 오르는 이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보인다. 몽글몽글 뽀뽀한 숲을 눈높이를 달리해 굽어보니 마치 속이 팍 찬 브로콜리 같다. 인적 끊긴 듯 조용한 가옥들이 발밑으로 지나간다. 순간순간 바뀌는 외경이 영사기 필름처럼 지난다.

불타는 노을의 정열 ... 젊음의 거리역

거리가 분주하다. 해풍에 실려 온 봄 내음이 문화의 거리에 와있기 때문이다. 젊음의 거리역은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문을 만들



어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떠오르는 해처럼 활기차고 그윽하게 바다를 물들이는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문화의 거리 상공. 이곳에서의 바다는 멀고 깊다. 유람선과 여객선에 몸을 싣고 바다를 보려는 사람들과 이를 쫓는 갈매기가 바다를 등에 지고 그림처럼 지난다. 서해의 바다가 하늘과 맞닿았다. 어디로 가는지 배들의 머리가 뿔뿔이 흩어진다. 바다를 가르는 파도는 이내 사라지고 태양 빛에 더욱 빛나는 바다. 월미산 방향으로 화려한 놀이기구가 빙글 빙글 돌아간다. 또 르르 굴러 떨어지듯 기분 좋은 사람들. 거리를 가득 메운 간식거리도 보인다. 머리 위를 지나는 꼬마기차가 신기한 듯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한없이 바라본다.

슬픈 이별의 바다 ... 이민사박물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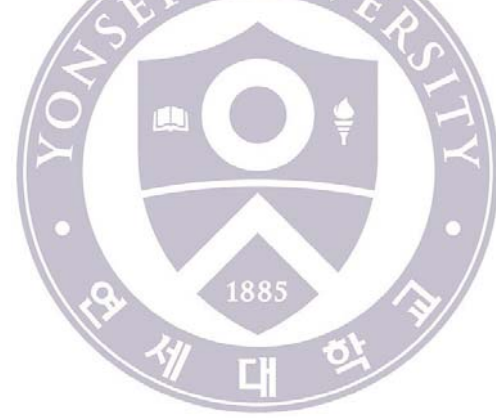
공중을 달리는 꼬마기차 월미은하모노레일은 곡선의 외발을 부드럽게 돌아 이민사박물관역에 닿는다. 파도의 웅장한 힘을 표현한 이민사박물관역은 바다를 넘어 이민을 떠난 이들을 추억하고 있다. 고난의 세월을 잊자고 떠난 이민자들의 삶을 담아놓은 이민사박물관은 항구도시 인천을 '이별의 항구'로 기억시킨다. 월미산 정상에서 나무들을 뚫고 햇불처럼 서있는 월미전망대의 말끔한 모습이 들어온다. 이윽고 바다가 좁아진다. 바다의 시작과 끝인 갑문항으로 거대한 배들이 들어오고 나간다. 월미산을 돌아가는 꼬마기차는 항구로 들어가는 배를 쫓으며 항구가 보이는 월미공원역으로 간다. 더 이상 감출 곳이 없는 월미도에서 발을 떼어놓기 아쉬운 이들

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각 역의 옥상은 작은 정원으로 꾸며져 휴식을 취하며 주변을 관광할 수 있다. 낮이면 사람의 발길로 뜨거워진 월미도는 밤이면 석양빛에 어깨를 맞대며 온화해진다. 달리는 꼬마기차 월미은하모노레일은 월미도의 낮과 밤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월미도의 새로운 마스코트

세계최초 Y자형 모노레일 시공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월미은하모노레일. 전기로 운행되는 월미은하모노레일은 총 6.1km의 거리를 순환한다. 노랑, 분홍, 파랑, 연두, 보라의 5가지 색상의 월미도 상공을 수놓을 꼬마기차는 2량이 1차량으로 편성돼 모두 5차량이 운행된다. 탑승인원 70명, 최대 92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 50km까지 달릴 수 있다. 장애인석을 별도로 만들어놓은 꼬마기차는 비상 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고 있다. 무인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월미은하모노레일의 실제운행 속도는 15~20km, 주변을 꼼꼼히 살피고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을 관광할 수 있도록 다소 느리게 운행된다. 월미도에 펼쳐진 전망을 한 바퀴 돌며 감상하는 데는 20분 가량 소요되는 꼬마기차는 1회왕과 자유이용권으로 선택하여 탑승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금·토·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이며 승객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시간이 조절된다.



언더우드 첫발디딘 그 땅에 신촌 독수리 날다

국내외 명문대학들이 인천 송도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연세대는 유수의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송도시대’의 선두에 서 있다. 2010년 3월 3일 가장 먼저 개교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그 중심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연세대 제공

송도는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비즈니스센터를 갖추고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핵심지역이다. 이 때문에 연세대와 같은 우수한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앵커기관’이 필요하다. 연세대학교가 송도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개교하게 된 배경은 오래전부터 신촌캠퍼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왔고, 우리시가 국제도시에 걸맞는 유명대학의 유치필요성에 따라 연세대에 캠퍼스 개교를 제안했고 연세대가 이를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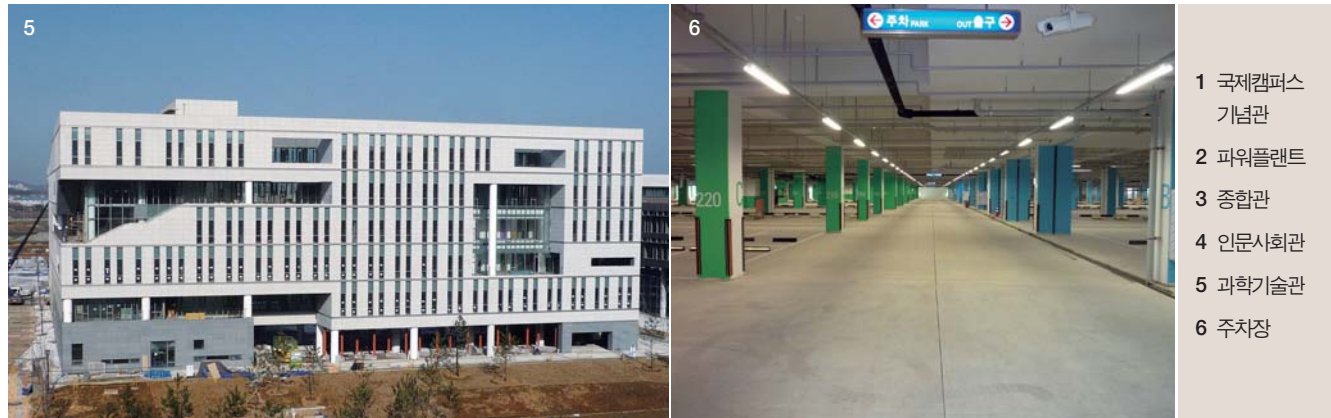
했기에 가능했다. 또 연세대는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커나가고 있는 송도에 이제까지 쌓아온 교육·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산학연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또 신촌캠퍼스에서 송도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연세대학교를 세운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19세기 말 조선에 첫발을 내디딘 곳이 인천이라는 역사성도 작용했다.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요건 중의 하나는 글로벌스타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화에 가장 앞서고 있는 국내 최고의 사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가 송도에 입지함으로써 송도의 대외적 인지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성공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학협동을 통해 송도경제자유구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중심의 레지덴셜 칼리지

연세대가 추진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교육·연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까지도 대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안된 지역혁신 모델이다. 총 142만㎡ 중 우선 92만4천㎡부지에 조성되는 1단계 사업에는 ‘글로벌캠퍼스’, ‘조인트 유니버시티’, ‘R&D캠퍼스’와 ‘글로벌 아카데미 빌리지’가 들어선다. 2010년 1차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89만1천㎡의 ‘R&D파크’ 조성사업에 착수해 2012년 2월까지 2단계 건축을 마무리하고 2012년 3월에 전면개교 하게 된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캠퍼스의 주된 핵심사업은 연세대 학생과 국내·국외 인력이 공동참여하는 ‘글로벌캠퍼스’이다. 글로벌캠퍼스는 부지면적 25만5천879㎡에 국내학생과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화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기존의 학과별 교육이 아닌 학제간(Interdisciplinary)커리큘럼이 시행 된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첨단캠퍼스와 대학의 국제화, 세계화라는 틀에 맞춰 영어중심의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로 설립된다. 레지덴셜 칼리지는 학생 전원이 24시간 교수들의 후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밀착형 교육을 뜻하는 말이다. 즉 세계 학생들과 함께 기숙생활을 하며 교육과 생활이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다.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인터내셔널 섬머스쿨이 운영될 예정이다. 중·고교생 대상으로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도입될 계획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글로벌캠퍼스와 함께 조인트 유니버시티 캠퍼스(Joint University Campus, 외국대학 유치)와 R&D 파크(해외연구소 유치)조성을 통해 교육·연구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조인트 유니버시티 캠퍼스는 ‘아시아의 교육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인트 유니버시티 캠퍼스 안에선 10여 개의 세계 명문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및 공동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외 명문대학의 아시아 분교가 설립됨으로써 아시아 교육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반으로 한 해외 명문대





학들간의 학술공동체가 구성되며, 해외 우수연구기관 및 글로벌 기업의 연구센터 설치, 해외연구기관과 연세대학교의 조인트 연구기관 설립, BT·IT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대학원이 설치된다. 대학, 연구소, 기업간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연세대는 이곳에 해외유명대학인 UC 버클리, MD앤더슨, 텍사스 오스틴 유니버시티를 비롯해 게이오대학(Keio Univ), 워릭대학(Univ. of Warwick), UPenn 게놈 연구소, 파리대학(Univ.Paris-Sud) 등과 MOU체결 및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과 공유하는 다양한 시설

R&D파크는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정보기술(IT)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의 메카가 된다. 글로벌캠퍼스와의 정기적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연세대와 유치된 기업, 연구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캠퍼스는 학생들은 물론 인근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시설도 조성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유시설인 체육관, 운동장, 복합문화시설, 체육관, 선교시설 등의 문화콤플렉스와 스포츠콤플렉스가 조성돼 시민들의 문화공간은 물론 레저 시설로도 활용된다. 또 이 캠퍼스에는 이곳에서 정주하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외국인을 위한 주거 및 상업시설도 설립된다.

연세대는 개교에 발맞춰 행정조직 배치와 캠퍼스 시험가동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개교 첫해인 2010년 3월에는 송도종합행정처, 한국어학당, UN지속가능발전센터를 개원하고 6월엔 국제하게대학, 한국어학당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9월엔 외국인 학부 예비과정이 열린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언더우드 국제대학, 약학대학, 의예과·치의예과, 공과대학 융합부문(대학원과정), 의생명과학 기술

대학(대학원과정), 언어연구교육원이 개교한다. 2013년부터는 아시아지역대학, 경영대학 글로벌 프로그램, 공과대학 융합부문(학부과정), 의생명과학기술대학(학부과정), 학부대학 프리미엄 프로그램, 해외기관 협력프로그램 등이 들어섬에 따라, 국내학생 3천명, 외국학생 1천명, 교직원 1천명 등 5천명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서 생활하게 된다.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캠퍼스 개교는 인천의 교육환경에 획기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양질의 교육환경으로 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고 고급인재가 배출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IT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에 스텐포드대학이 있었고, 유럽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에는 파리대학이 있었던 것처럼, 송도의 해외투자기업 및 외국기관의 유치에 연세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G



Songdo Global University Campus →

유학, 인천으로 오세요!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유명대학들이 송도글로벌캠퍼스로 집결하고 있다. 송도글로벌캠퍼스는 해외유명대학의 경쟁력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놓은 종합대학 형태다.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송도글로벌캠퍼스 개교로 국내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가기 위해 드는 노고와 경비를 절약하면서 한국에서도 경쟁력있는 첨단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송도글로벌캠퍼스는 학생선발 및 커리큘럼이 미국 본교와 같이 운영되고, 학위수여가 동일한 점이 장점이다. 또 학생들이 본교 캠퍼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부지는 총 29만5천㎡로 1차로 2010년 9월까지 3만4천700㎡가 먼저 조성되고, 2011년 8월 2차부지(5만6천400㎡), 2012년 8월 3차부지(20만3천800㎡)공사가 마무리된다.

현재 캠퍼스 입주를 확정된 대학은 미국 뉴욕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이다. 뉴욕주립대는 경영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과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는 생명공학, 섬유공학과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 대학은 올해 9월부터 예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신입생 모집을 거쳐 2011년 9월부터는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주리대, 델라웨어대, 남가주대, 조지메이슨대, 조지아공대, 서리대학 등도 입주사를 밝혀 인천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JCB(Joint Center for Biosciences)기관인 솔트인스티튜트 투자연구기관, 생명공학연구소를 비롯해 CEWIT 연구소의 한국분원도 유치되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지식기반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UC버클리법대는 오는 5월경 단기간의 최고경영자 과정(Global Executive Training Seminar)을 송도에서 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버클리법대 IELF'교육기관을 설치할 구상을 갖고 있다.

2012년 9월 전면개교하는 송도글로벌캠퍼스에는 학생기숙사, 교직원 숙소, 연구원 숙소를 비롯해 도서관, 지원센터, 학생회관, 교수회관, 체육관 등의 공동시설 등이 들어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시설로 활용된다. 1만2천명의 학생들이 캠퍼스를 거닐게 된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우리시가 국내최초로 외국대학(학부중심)의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지식기반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동북아 교육허브로 추진해 왔다. G



- 1 정문
- 2 운동장
- 3 체육관
- 4 수영장
- 5 공연장
- 6 초등샘플룸

국제학교 1호 ‘송도국제학교’ 개교

국제도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올해 송도국제도시에는 대한민국 국제학교 1호인 송도국제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송도국제학교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주시설 중 하나로 국제도시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글로벌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유치원부터 학사운영 시작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따른 국내 첫 국제학교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국제학교.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6만9천㎡의 부지에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승인을 받으면 3월 개교를 목표로 해 유치원과정부터 학사운영에 나서게 된다. 친환경 건축자재에다 디지털장비를 갖춘 교실, 국제규격의 수영장 및 체육관 등 국내 어느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첨단시설을 자랑한다.

대지면적 7만1천405㎡,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송도국제학교는 자연상태에 30~35년 정도 놓아도 표면에 녹색계층의 산화피막이 형성된 ‘산화동판’과 100년 이상 원형이 보존되는 특수목재인 브라질의 ‘이페나무(Ip Trees)’등 친환경 건축자재로 외벽을 장식했

다. 학교 내부는 새집증후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내벽도 그대로 노출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고, 빗물과 하수도를 정화처리하는 중수도를 조경과 청소용으로 공급하는 등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도입됐다.

학교시설도 국제규격에 맞췄다. 교문 왼쪽 운동장은 이탈리아 프로축구단인 AC밀란의 전용구장과 똑같은 재질의 인조잔디를 잔축구장과 둘레 400m의 육상트랙을 갖췄다. 이 학교의 운동시설은 모두 국제규격이다. 접이식 관람석 1천442석의 주 체육관과 수영장에서 경기장을 치르면 공인기록으로 인정받을 정도다.

‘편의동’에는 이 같은 실내 체육시설외 관람석 158~160석을 갖춘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현악실, 합창실, 개인악기연습실(6개부스),

도예실이 있다. 이곳의 방음벽, 조명시설, 음향시설은 모두 수준급이었고, 바닥에는 대부분 원목을 깔았다.

교사 1명당 학생 10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교실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카펫바닥, 대형발광다이오드(LED)영상시설, 싱크대 등이 놓여있다. 유치원~초등학교 3년생 교실에는 남녀화장실 1개씩을 마련해 놓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은 모두 자연채광이 되는 지점에 있다. 외국과의 화상 및 토론수업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한 별도의 교실도 갖췄다. 총 사업비 1천500억원이 투입된 이 학교시설(터 7만1천400㎡, 총건축면적 5만4천200㎡)은 지난해 5월 완공됐다.

전체학생 2천1백명...30%정도 내국인 선발

송도국제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교운영은 미국 명문사학이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학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되고, 5세이상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과정으로 이뤄지고, 전체 학생모집이 완료되면 총 2천1백명이 될 전망이다.

송도국제학교는 유치원~고교의 총 정원 2천1백명 중 30%가량을 내국인으로 뽑을 수 있다.

또다른 인터내셔널스쿨, 청라외국인학교 내국인은 해외거주 3년 이상돼야 입학

청라외국인 학교는 서구 경서동에 2011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 4만6천200㎡에, 사업비 379억원이 투자되며 미국식 학제가 적용된다. 학교시설은 국내 최고의 외국인 학교라는 명성에 걸맞게 건립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비롯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콘서트홀, 승마장, 기숙사, 외국인교사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추게 된다.

학교는 2011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8월 모집공고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집하며, 총 12학년제로 운영한다. 모집규모는 각 학년별 120명씩 총 1천440명으로 이중 내국인학생 비율은 30~50%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입학생은 시험없이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심층면접으로 100%선발하며, 내국인 학생은 해외거주 3년 이상되어야 입학할 수 있다. 청라외국인학교 학교운영은 외국 법인이 아닌 국내 학교법인인 봉덕학원이 맡아 운영하게 된다. 양천구 목동에 국내 자율형사립고인 한가람고를 운영중인 봉덕학원은 국내 명문 사학법인으로 달튼 플랜이라는 학생경험 중심의 진보적인 교육방법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 외국인 자녀 및 해외에 거주한 내국인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억 담은 필름은 여전히 돌이킨다

경동(京洞)은 '경성(서울) 가는 길목에 있던 동네'라는 뜻에서 이름을 얻었다. 사람들은 경동이란 행정명보다 흔히 '짜리재'라고 불렀다. 뜻풀이를 하면 '짜리가 많은 언덕'이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 짜리가 많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향토적인 이름과 달리 이곳은 한때 최신 유행을 선도하던 인천 최대의 변화가였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할리웃 키드의 낭만, 애관

시계바늘을 100여 년 전으로 돌려보자. 제물포항에 짐을 내린 벽안(碧眼)의 외국인들은 서둘러 서울로 향한다. 말잡이는 짜리재로 길을 잡는다. 우마차 한 대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길 초입에 들어서니 거름 냄새가 코를 찌른다. 주변은 온통 중국인들이 정착하는 양배추 밭이다. 오른쪽 언덕에는 주변 풍광과는 어울리지 않는 서양식 건물이 하나 서 있다. 파리 외방선교회가 지은 제물포본당(담동성당)이다. 고개 길을 조금 더 오르니 멀리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기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 전에 개통한 경인철도이다.

시계바늘을 50여 년 전으로 당겨본다. 이제 전쟁은 끝나고 사람들은 폐허가 된 땅에 다시 삶의 씨앗을 파종하기 시작했다. 짜리재에도 활력이 들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모던보이 모던걸의 무대였던 경동에 양복점과 양화점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니 길 양 옆으로는 상점들이 빼곡히 줄을 이었다. 긴담 모퉁이 길 입구 언덕에 미국 감리교의 도움으로 지은 기독병원이 개원하고 주변에 개인병원도 한 집 걸러 하나씩 생겼다. 더불어 약방과 약국도 속속 문을 열면서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붐볐다. 2010년 2월 중순, 겨울비가 내리던 날 그곳에서 다시 시간여행을 한다. 경동파출소 앞에 섰다. 6·70년대 야동(야간통행금지)이 있던 시절에 변화가의 특급지 답게 사건사고로 늘 시끌벅적했던 파출소였지만 지금은 '경동치안센터'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의경 혼자 한가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동에 오면 아직도 옛 추억을 고스란히 곱씹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애관극장이다. 이 극장은 공인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협률사(協律社)라는 우리나라 최초 공연장의 뿌리를 품고 있다. 애관극장 덕분에 일제강점기 때 경동거리는 '복지강화'(합동영화사), '날개 없는 천사'(국보영화사) 등이 제작 보급될 만큼 한동안 시네마 천국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스크린을 가진 애관극장에서 당대 스타였던 신성일과 엄앵란이 무대인사를 하던 날 이 일대가 교통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전설로 남아있다.

애관은 지난 2004년 '살아남기 위해' 5개의 스크린을 가진 멀티플렉스로 변모했다.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아바타와 공자 등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극장에 들어섰다. 평일 한낮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극장 안의 풍경은 늘어진 필름처럼 한가롭게 돌아가고 있다. 이곳에서 두 시간 내내 까치발을 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았던 할리웃 키드들에게는 애관이 존재하는 그 자체 만해도 그저 고맙기만 하다.





양복, 드레스에 자리를 물려주다

극장 뒤 언덕에 오르면 신신예식장이 있다. 이 예식장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80년대 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좀 폼나게'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거의 신신예식장에서 치렀다. 이 예식장에는 정원이 딸려 있어 예식이 끝나면 이 야외마당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예식장이 비어 있는 날짜에 맞춰 결혼날짜를 잡아야 할 정도로 인기 있었던 곳이다. 요즘 청첩장에서 신신예식장 활자를 본 지 오래됐다. 이름도 신신컨벤션웨딩홀로 바뀌었고 우아했던 그 모습도 여러 차례의 증축을 통해 사라지고 말았다. 신신의 명성은 시들해졌지만 예식장은 이 거리에 웨딩문화의 씨앗을 뿌렸다. 길 양편으로 드레스 숍이나 한복 그리고 사진관 등 결혼 관련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웨딩거리'로 명명되기에 이르렀다.



번성했던 경동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상점은 양복점이었다. 한미라사, 김테일러, 화신양복점, 서울라사, 잉글랜드양복점, 자유라사, 신라라사, 백양테일러, 대흥양복점, 월드양복점, 현대라사 등 한창 때는 30개의 양복점이 성업 중이었다. 멋쟁이 신사들이 한 벌 짝 빼입고 활보하던 거리에 이제 양복점 간판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기성복에 밀리고 백화점에 밀린 것이다. 모퉁이 길에서 눈에 띄는 이수일양복점에 무작정 들어갔다. 한가롭게 TV를 보던 이수일(68) 사장에게 옛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다 잊혀진 이야기인데 뭘..." 하면서 마뜩치 않은 눈치이다. 이것저것 양복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던지자 그는 얘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한창 때는 재단사, 봉제사 등 20명을 두고 장사를 했지. 이런 설 명절 때는 몇일 밤을 새워서 일하곤 했는데... 한때 영화 예고편 앞에 양복점 광고가 몇 개씩 붙은 적도 있었지."

손님 한 명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오늘이 가봉하는 날이란다. 가봉...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가. 이내 줄자를 목에 건 이 사장의 눈빛은 장인의 눈빛으로 변한다. 돌리고 재고 올리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몸통 치수를 잴을까. 요즘 맞춤양복 한 벌 값은 대략 100만원선. 단골인 듯한 손님은 스스로 특이 체형이라면서 양복을 꼭 맞춰 입는다고 한다. "아마 여기에 제 아버지 치수 장부도 있을 겁니다." 오래된 장부를 들춰보면 체형이 비슷한 부자(父子)들이 대를 이어 양복을 맞춰 입었음을 알 수 있으리라.

노란자위 뜯 싹화차

차 한잔 권하는 이수일 사장에게 대신 이 동네에서 좀 오래된 다방을 알려달라고 하자 바로 양복점 옆 골목



에 있는 학다방을 소개한다. 인천에서 연조가 있는 다방 중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나무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색깔 있는 어둔 조명 밑 탁자와 의자 등의 소품이 70년대 다방 분위기를 그대로 풍겼다. '꽃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릴 들어보렴' 최백호의 노래가 생각났다. 마침 비도 오겠다 도라지 위스키 대신 쌍화차를 한잔 시켰다. 잠시 후에 노란자위가 등등 뜯 싹화차가 탁자에 놓였다. 아, 계란 띄운 쌍화차가 이곳에서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약을 사기 위해 문밖으로 줄을 길게 선다면 이해가 갈까. 그런 풍



경이 심심치 않게 연출되었던 곳이 동서대약국과 찌리재약국이었다. 기독교병원을 중심으로 김내과, 이이비인후과 등 십수개의 개인병원이 함께 의료타운을 이룬 덕을 톡톡히 보았다. 인근 김포, 강화, 옹진 섬 사람들이 시내를 방문한 차에 약을 박스나 봉지채로 사가곤 했다. 동서대약국의 간판에는 'Since 1946' 이란 글자와 함께 옛모습의 사진이 걸려있다. 옛 주인은 미국으로 이민가고 지금은 이 집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사가 세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옆의 찌리재 약국은 경동 지역에서 '찌리재'라는 이름을 쓰는 거의 유일한 집이다. 그렇게 찌리재는 잊혀져가고 있다. G



다시 조명이 켜지다

찌리재하면 '돌체'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돌체는 최영준, 김성찬, 정주희 등 100여 명의 연극인들을 배출한 인천 연극의 산실이었다. 지난 1978년 12월 얼음공장을 개조해 약 90석 정도 되는 객석과 무대공간을 만들어 문을 열었다. 초기에는 연극뿐만 아니라 통기타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어롱의 무대도 겸했다. 극단마임 대표인 최규호 씨가 극단의 전용극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연극에 불씨를 키우기도 했다. 2007년 마임이 남구 문학동으로 이전하며 돌체극장은 한동안 조명이 꺼졌다.

그런 돌체가 최근 문화활동가이자 작가인 장한섬(36) 씨에 의해 '플레이캠퍼스'라는 간판을 내걸고 다시 개관했다.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트릭'을 무대에 올려 돌체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다. "지역 연극의 산실이 다시 명맥을 유지해나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는 장 대표는 '한 극단의 전용극장이기 보다 인천문화예술인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내비친다. 그 일환으로 실버극단과 직장인 중심의 극단도 만들고 극장 옆에 비어있던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들어 인문학카페를 운영할 생각이다.

스크린에 비친 인천상륙작전

글 조우성 시인,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영화 '인천상륙작전' 포스터

인천상륙작전의 배경은 단순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일제히 남침해 왔고, 개전 41일 만에 낙동강 이남을 빼놓은 전국토를 함락시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신생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판이었다. 북한군은 “적들을 일층 무자비하게 소탕하라. 부산과 진해는 지척에 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앞으로! 앞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후의 일전에 벌였다. 그 국과(國破)의 경각지세에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은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이요, 그를 위해서는 옛 병법(兵法) 그대로 적의 늘어진 보급로를 끊어 협공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천상륙작전의 요체였던 것이다. 개전에 앞서 팔미도 등대의 불빛을 따라 인천 앞바다에 포진한 유엔군 함대의 모습은 세기의 장관이었다고 기자들은 전 세계에 타전했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가 8m에 달하는 인천항의 조건은 작전 수행에 큰 걸림돌이었다. 그럼에도 그것이 오히려 작전을 용이케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작전의 아이러니였다. 미국의 여기자 마가렛 히긴스(1951년 풀리처상 수상)는 “작전에 참여한 함정은 총 2백60척이었다. 거대한 함포사격이 48시간 동안 집중되었다. 첫 번째 상륙지점은 월미도로 새벽에 이뤄졌다. 오후 5시 30분에는 인천의 심장부인 레드비치에 올랐다. 세 번 째 상륙지점은 인천 남쪽 해안인 불루비치였다.” “월미도에는 거대한 산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부둣가의 건물들도 화염

에 싸였다. 뿌연 연기 속에 바라다 뵈는 인천 시가는 불길 속에 있는 듯 보였다. 북한군의 조준은 정확했다. 머리 위로 총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6명의 해병들이 총에 맞고 나뒹굴었다.”며 위급한 당시의 전황을 그의 저서 ‘워 인 코리아’에서 밝히고 있다. 같은 시각, 지금의 남동구 간석동 석바위 언덕머리에서 멀리 중구 해안가의 상륙작전을 목도하고 있던 문학평론가 김양수 선생은 그날의 숨막히는 상황을 ‘인천은 불타고 있는가’란 책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곳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쉬고 있었다. 모두 바다를 가득 메운 유엔군 함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전 11시경이었다고 짐작되는데, 그라만 전투기 편대가 새까맣게 하늘을 날며 인민군 포대가 있는 월미산과 도원산 정상에 기관총을 퍼부었다. 12시. 함포가 굉음을 내며 ‘히타치’에 떨어졌고, 시내 쪽으로 작은 폭탄들이 우박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발사됐다. 소래 쪽으로 피했다가 이틀 뒤 시내의 집으로 돌아왔다. 시내에 들어서니 집들이 모두 불탄 게 아니었다. 포탄은 군사시설에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났을 뿐, 시내의 모든 민가가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그날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 제226독립 해병연대, 제918포병 연대 등과 혈전 끝에 밤중이 되서야 인천 해안가에 상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두고 시내 도처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하는 참혹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미 국무성 소속 종군기자로 활약했던 원로 사진작가 임응식 선생은 회고록 ‘내가 걸어온 한국 사단’에서 “낮에는 시내에 나왔다가 밤에 배로 돌아가는 생활을 계속 했다. 9월 24일에야 비로소 평정을 찾았다.”고 생전에 증언한 바 있다. 북한군은 결국 패주하면서 부평, 김포, 여의도 방면에서 계속 저항해 그로부터 나흘 뒤인 9월 28일에야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다. 우리 해병대 용사들이 중앙청에 감격의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이것이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인천상륙작전의 단편적 한 모습이다. 그러나 동족 잔상의 참상을 삭이기에는 실로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상처가 쉬 아물 리 없었던 것이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겪은 전쟁인 ‘인천상륙작전’을 처음 영화화 한 것은 이만희 감독이였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년)’은 당대 일급 배우인 장동휘, 최무룡, 구봉서, 이대엽, 김운하, 독고성, 전계현 등이 출연해 전쟁 중의 휴머니즘과 전우애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분대원 42명 중 단 2명만이 생존해 ‘영영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영화 '결사대작전' 스틸컷

됐다는 스토리다. 대종상 영화제(1964), 청룡영화상(1963)에서 감독상 등을 휩쓸었고, 그 무렵 22만여 명이 관람하는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전쟁영화의 기준을 만들어낸 작품으로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북한군과 함께 중공군을 주적으로 부각시켜 주목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에 조공하 감독의 동명 ‘인천상륙작전(1965년)’이 있다.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의 전투 신을 재현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신영균, 김혜정, 윤일봉, 장동휘, 허장강, 황해 등이 출연했다. 6·25전쟁 중 유엔군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기 위해 잠입한 북한 여간첩(김혜정)이 정보장교 신 대위(신영균)에게 진실한 사랑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북한군에 역정보를 흘려 마침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게 한다는 줄거리다. 인천상륙작전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는 1969년에 개봉된 ‘결사대작전’이었다. 박노식, 장동휘, 허장강, 황해 등이 출연했다. 상륙작전을 앞두고 팔미도 등대를 탈환해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해병대원들의 비화를 소개한 것이다. 현지 로케 등을 통해 사실감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팔미도에 잠입했던 켈로 부대원들의 활약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픽션이었다. 북한도 그들의 입장에서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영화 ‘월미도(1983년)’를 만들었다. 원작 소설 ‘불타는 섬을

각색한 이 영화는 월미도 주둔 부대의 중대장과 통신수를 통해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남녀 전사’의 운명을 그리고 있다. ‘중대장 리태훈이 직사포 4문으로 미군 5만 대군을 상대로 3일간 월미도 앞바다를 막아 북한군의 전략적 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했다’는 등 역사적 진실과는 동 떨어진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상영이 안 된 인천상륙작전 소재 미국 영화가 있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왕년에 첩보영화 ‘007시리즈’를 감독했던 테렌스 영 감독이 명우 로렌스 올리비에와 인기여우 재클린 비세트, ‘도망자의 데이비드 잔센, 한국인 배우 남궁원 등 초호화 배역진을 동원해 크랭크인 한 것이 1981년이였다. ‘오, 인천(Oh, Incheon)’이란 제목의 이 영화는 5년간 제작비 4천410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보통영화’였다. 칸 영화제에서 140분짜리 영화가 상영되었지만 혹평을 받아 105분으로 재편집해 개봉했으나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직·간접적으로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영화에 ‘아베고 공수군단(1982년·임권택 감독)’, ‘블루하트(1987년·강민호 감독)’ 등이 있으나 인천 시민들이 몸소 겪은 전쟁의 실제적 진실을 형상화한 영화는 아직 탄생되지 않았다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일 것 같다. 그 동족상잔의 참상 속에서 우리 선대들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준 역사적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60년이 된 오늘 아직도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 훗날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기록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전쟁 체험자들의 구술, 각종 문서와 시각 자료의 수집과 보존,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전사 자료의 발굴 등등을 통해 더 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밝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부과된 역사적 책무리라.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포스터



영화 '결사대작전' 포스터



영화 '오, 인천(Oh, Incheon)' 포스터

Music & Play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쇼팽 스펙셜
리스트로 익
히 알려진 임
동혁은 이번
리사이틀에
서 더욱 정제
된 감수성으
로 쇼팽 재해

석에 도전한다. 뿐만 아니라 라벨과 프로코피에프 등 또
다른 감성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레퍼토리로 선택하여 관
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가 선택한 라벨의 ‘밤의 가스파
르’는 피아노 4대 난곡 중 하나로, 라벨 작품의 극치로 손
꼽힌다. 더불어 폴란드의 활기찬 민속춤곡 쇼팽의 ‘마주
르카’,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음악 걸작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6번’ 등을 만날 수 있다.

일시: 3월 6일(토) 오후 7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황금 나팔
멜로디 따라
상상의 나라로

2대의 트럼펫,
튜바, 호른, 트롬
본 구성의 금관
오중주.
제1트럼펫은 알
렉세이 볼코프
(Alex Volkov)

제2트럼펫은 고대림, 호른은 김보선, 트롬본은 니콜라
이(Nikolay Korshunov) 그리고 튜바는 타라스 오를로프
(Taras Orlov)의 연주가 무대에 선다. 러시아의 화려하
고 웅장한 음악을 수준 높은 연주와 재밌는 해설로 색다
른 무대를 경험할 수 있다.

일시: 3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부개문화사랑방
티켓: 3천원
문의: 부개문화사랑방, ☎ 505-5995



2010
커피콘서트II
‘The Most’

오후 2시에 열
리는 커피 콘
서트는 향기
로운 커피 한
잔과 함께 공
연관람 외에도
무대 주인공이
들려주는 작품

에 대한 해설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다. 이번 커피콘서트에서
는 기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모인 ‘The
Most’가 ‘8월의 크리스마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냉
정과 열정 사이’ 등 영화의 감동을 더하는 영화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일시: 3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HEDWIG and the
Angry Inch

뮤지컬 ‘헤드워’은 모놀로
그와 하드록 넘버, 록 밴
드, 그리고 일러스트레이
션으로 구성된 무대이다.
극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
객들은 어느새 맨해튼의
한 3류 호텔 불룸에 와 있
다. 2시간 동안 인터미션
없이 채워가는 ‘헤드워’의
힘은 바로 인물에 있다. 여
자보다 더 예쁜 남자들의
향연에 눈이 멀고, 현란한
하드락 밴드의 음악에 귀
가 멀고 마는 매력의 중심,
거기에 바로 ‘헤드워’, 그 혹은 그녀가 있다.

일시: 3월 20일 오후 3시, 7시 / 3월21일 오후 2시, 6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6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문의: 1566-6551, interpark.com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 뮤지컬 웨딩마치 오후 2시,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2만 5천원 대학생 1만 8천원, 청소년 1만 2천원 ☎ 555-5521 / CS뮤지컬컴퍼니	8 	9 	10 황금나팔 멜로디 따라 상상의 나 라로 오후 7시 30분 부개문화사랑방 3천원 ☎ 507-5996	11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 오후 4시 30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전석 무료 ☎ 761-4001 / 송현문화센터	12 뿌로로와 동화여행 오후 4시 30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전석 1만8천원 ☎ 1566-7754 / 한울ENT	13 봄을 알리는 발레 페스티벌 오후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전석 무료 ☎ 815-1227 / 박태희발레비전
14 제46회 정기연주회 봄맞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 429-0248/ (사)인천음악문화원	15	16 2010 호산나 합창단 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초대 ☎ 501-8003 / 호산나합창단	17 커피콘서트2 (THE MOST)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전석 1만원 ☎ 420-2027-8 / 인천&아츠	18	19 뮤지컬 '내 몸은 소중해요' 오전 10시 20분, 11시20분,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 010-4923-1948 / 극단 상상	20 2010 ARE YOU READY? 뮤지컬 '헤드워'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 1566-6551 / 청라이프-
뿌로로와 동화여행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 1566-7754 / 한울ENT					백영규의 가고싶은 마을 공개방송 오후 7시 30분 부평문화사랑방 3천원 ☎ 505-5995	뮤지컬 '내 몸은 소중해요'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 010-4923-1948 / 극단 상상
						팔페라 콘서트 오후 3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써리제출 전석 6천원 ☎ 760-3455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1 2010 ARE YOU READY? 뮤지컬 '헤드워' 오후 2시,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 1566-6551 / 청라이프	22 	23 	24 리어석 기타 오케스트라 오후 7시 30분 부개문화사랑방 2천원 ☎ 507-5996	25	26 시립교향악단 제298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420-2781 / 시립교향악단-	27 두들두들 주주 콘서트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전석 2만원 ☎ 427-4893 / 극단 POP
					어린이뮤지컬 못 말리는 연들이식당 오전 10시10분, 11시10분 오후 1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5천원, 단체 4천500원 ☎ 1688-3820 / 극단코스모스	임미희 오페라단 제8회 정기공연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265-8683 / 임미희오페라단
28 두들두들 주주 콘서트 오후 1시,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전석 2만원 ☎ 427-4893 / 극단 POP	29	30 햇님달님 오전 11시,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전석 1만5천원, 소외계층시민 무료 ☎ 572-4281 / 사랑극단 꼬마세상	31 젊은 판소리 한마당 오후 7시 30분 부개문화사랑방 2천원 ☎ 507-5996		전무송이 해설하는 한국문학사리즈 I 오후 7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써리제출 전석 6천원 ☎ 760-3455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전무송이 해설하는 한국문학사리즈 I 오후 4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써리제출 전석 6천원 ☎ 760-3455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경인방송 '명품콘서트'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초대 ☎ 830-0601 / 경인방송			햇님달님 오전 11시,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전석 1만5천원, 소외계층시민 무료 ☎ 572-4281 / 사랑극단 꼬마세상		퓨전국악그룹 '이스터닉스' 오후 7시 30분 부평문화사랑방 3천원 ☎ 505-5995	전무송이 해설하는 한국문학사리즈 I 오후 4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써리제출 전석 6천원 ☎ 760-3455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이달의展

3월1일~4일 은희정 제1회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3월12일~18일 김보섭 사진전시회 ‘시간의 흔적’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3월1일~4일 제5회 가재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3월13일~14일 제7회 인천년명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중앙전시실
3월3일~9일 姑 최성연선생 기증자료 사진집 발간기념 출판기념 및 사진전시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3월19일~28일 사람과 사람 전(가온갤러리 공모당선 그룹1)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3월5일~11일 박정희 수채화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3월26일~31일 부평미술인회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3월11일~17일 봄이 오는 소리전(꽃꽃이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3월26일~31일 몽상가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3월26일~31일 유재민 청관미우 동인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3월26일~31일 이은하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이달의冊



정이수 산문집 『문자메시지 길을 잃다』

인천의 여류작가 정이수 산문집 『문자메시지 길을 잃다』에는 지난 2002년 월간문학 신인상을 수상한 수필 ‘월요일 풍경’ 외 총 50여 편의 수필과 콩트가 실렸다. 작품 속에는 작가의 삶의 여정이 면면이 들어 있고 단어 하나하나 선택에도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40대 후반에 등단하고 50대 중반이 돼서야 처녀 작품집을 낸 그녀의 글에서는 생활의 깊이가 잘 발효된 향내가 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는 진솔함이 신뢰감을 더해 준다. 선우미디어, 244쪽 1만원

김보섭 사진전 「시간의 흔적」 동구의 공장들



공장, 그 공존의 의미

‘비 오는 날 북성북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대성목재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원목을 실은 배들이 오가고 있다. 바다와 공장은, 아직 변화하지 않은, 인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김보섭 공장 사진집 중에서)

사진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다. 특히 기록성을 바탕으로 한 사진은 그것이 그대로 역사 기록이요 따라서 문화재이다. 사진에 찍힌 상황은 늘 현재 상황이지만 이것이 해를 더하여 쌓이면 역사가 되는 것이고, 따로 분리되면 문화재가 된다. 그만큼 김보섭의 카메라는 인천의 구석구석을 훑고 다닌다. 아직 건장한 나이이고 그가 늙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찍는다고 할 때, 과연 그의 필름에 담긴 인천은, 그 드라마는 어떠한가 상상만으로도 참 대단하리라는 게 느껴진다. 그의 사진의 일관성은 대상과 분위기에서도 감지된다. 대상이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성 말고도 언제나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그의 사진에 일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일견 험차고 웅장한 화면이면서도 무언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또한 그의 사진에 일관된 분위기임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주제가 ‘시간의 흔적’이어서일 것이다. 낡고 헌것, 사라져 가는 것 등 시간이 남기고 간 자국, 세월이 활쫓고 간 상처가

그가 추구하고 있는 주제로,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사진은 설혹 아름다운 영상이라 해도 깊은 어두움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힌다. 사람을 찍진 풍경을 찍진 그의 사진에 이런 깊은 어두움은 일관되고 있다. 「청관」에서부터 배어나온 어두움은 「바다 사진관」과 「수복호 사람들」에 두루 일관되지만, 특히 「한의사 강영재」에서는 관능의 비릿한 냄새까지 풍겼었는데, 이번 사진에서는 그 어두움을 꽤 많이 벗어난 듯하다. 그러나 어둠에서는 좀 벗어났을지 몰라도 밝아진 것은 결코 아니다. 부두에서도 공장에서도 그의 눈길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번득이고 있음이 느껴진다. 그것이 직설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화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음울함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내면성이 파노라마의 시각과 함께 그의 사진에 세련미를 높여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보섭 사진전 「시간의 흔적」 동구의 공장들

2010. 3. 12(금) - 3. 18(목) | Opening : 2010. 3. 12(금) p.m 6: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후원 : 인천문화재단





외국인들의 어려움 돕는 외국인

외국인종합상담소 자원봉사자 송타나

외국인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상담한다면 도움을 받는 외국인들은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러시아 여성 송타나(33) 씨는 인천시 국제교류센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상담소에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월, 화, 금요일 출근해 4시간씩, 외국인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나 그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기관을 알려준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다 쳤는데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어딘지, 결혼과 이혼 시 변호사를 알선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등 실생활과 관련된 상담이 많아요.” 송타나 씨는 9년 전 인천남자와 결혼해 인천에 정착했다. 9년간 인천에 살면서 인천사람이 다 됐다는 그녀. 이제는 고향인 러시아 하바로스크가 너무 추워서 못 간다고 할 정도다. 그녀는 하나뿐인 딸의 교육환경을 위해 이사를 생각하고, 수봉도서관과 점질방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국주부이자 인천사람이다. “제가 도와 드린 분들이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올 때 일하는 보람을 많이 느껴요.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줬으면 해요.”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미래가 기대되는 무서운 신예

인천 UTD가 1순위로 선발한 남준재 선수

100m를 11초에 주파하는 빠른 스피드가 장점. U-17세 대표와 2009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표 등을 거친 유망주. 2010년 유력한 신인왕 후보 ... 인천 유나이티드가 2010 K-리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선발한 남준재 선수를 표현하는 말은 다양하다. 키183cm, 체중 75kg의 당당한 체격의 남준재 선수는 어릴 적 꿈도 세계적인 축구선수였다. 스스로의 장점을 ‘꿈을 꾸며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라고 말하는 그의 올해 목표는, 두 자릿수 득점과 아시아경기대회의 대표팀 멤버로 발탁되는 거라고 한다. 또 K-리그 최고의 팀으로 꼽히고 있는 전북 현대 모터스와 포항 스틸러스를 꼭 이기고 AFC 진출권을 얻고 싶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다진다. 절친한 친구 유병수 선수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K-리그 전체에 이름 석 자를 알리고 싶다는 그는, 평소 명문 구단이라고 생각했던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활동하게 된 것이 지난해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말한다. 스피드 있고 공간침투가 좋은 2010 신인 1순위 남준재. 올해 남준재 선수의 발끝에서 인천의 역사가 새로 써지기를 기대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The Globalization of Incheon

바다와 섬의 도시, 인천

글 스티븐 워커 교수(노스웨스트 컬리지)



15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과 바다를 가진 인천은 다른 나라의 국제도시가 지니지 못한 독특한 멋이 있다. 인천은 아메리카에서 보면 대륙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아름다운 도시들 중의 하나인 시애틀이나 밴쿠버와 유사한 면이 많다. 우선 인천, 시애틀, 밴쿠버 등은 모두 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멋진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도시들은 대륙 동쪽의 대서양이나 동해의 거센 파도가 주는 역동적 느낌과는 달리 평화롭고 잔잔한 서쪽 바다의 고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세 도시 모두 국내외와 쉽게 교류할 수 있는 공항과 항만이 발달했고, 여객선과 크루즈 관광이 유명하며, 시애틀의 Space Needle, 밴쿠버의 빅토리아섬에 있는 Butchart Gardens, 인천의 인천대교 등 세계적인 명소들을 저마다 품고 있다. 배를 타고 인천대교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크루즈 관광을 즐긴다고 한다. 바다, 섬, 배 등은 아마 인천의 최고의 관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섬들은 세계의 다른 항구도시들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모든 국제도시의 항구들이 갖지 않은 갯벌이 인천의 많은 섬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갯벌은 인천의 섬들이 오랜 역사의 족적과 향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도회적인 색채만을 발산하는 다른 나라의 미항들과 달리 자연친화적이고 신비한 생명을 암시하는 상당히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인천의 섬들은 모든 곳에서 접근하기 쉽다. 인천의 섬들은 아기자기 하고 저마다 특별한 멋과 정취를 자아내며 모든 곳을 직접 가볼 수 있다. 인천의 섬들을 생각하면 'Nothing is out of reach. If you can see it, you can get it,' 즉 어느 곳도 닿지 못할 곳은 없으며 눈으로 보이는 모든 곳을 직접 가볼수 있다. 생명이 숨쉬는 광활한 갯벌이 있고, 바다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운 곳, 가는 모래, 작은 자갈, 진기한 돌들이 있는 곳, 인천의 섬들은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사색하고 싶은 곳이다.

두무진, 바닷속의 캐년

인천의 많은 관광지 중에서 다섯 개의 섬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백령도가 북한과 불과 10여 킬로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흥미로웠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이 북한과의 경계선 근처라는 것이 DMZ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나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물개가 평화로이 서식하는 이 아름다운 섬은 시애틀 앞바다의 돌고래를 상기시켰다. 두무진이라는 기암절벽을 보았을 때, 그것은 바닷속에 자리잡은 캐년같았다. 섬 속의 동굴의 모습은 웅장하지는 않지만 제주도의 만장굴같은 섬 속의 동굴이라는 독특한 체험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원시의 모습을 한 커다란 돌들이 해변을 평면에서 입체로 만들고, 쿵돌해안에서 모래대신 쿵만한 매끌매끌한 작은 자갈이 바다의 양탄자처럼 깔려있는 모습은, 거친 돌과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미국의 해안과는 전혀 색다른 느낌이었다.

섬 속의 섬 덕적도. 연안부두에서 한 시간 40분 정도 페리를 타고 덕적도에 내렸다. 덕적도의 정승문 면장님을 통해 이 섬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얻게된 것은 행운이었다. 면장님은 굵은 소나무가 바다와 모래사장에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특히 강조하고, 이 섬이 47개의 군도를 거느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중

에서 바닷속에서 멋지게 솟아올라온 선단여는 바다를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 아름다움은 내가 아이슬랜드 해안에서 보았던 기암괴석들을 상기시켰다. 덕적도의 비조봉이라 불리우는 높은 바위는 서해안에서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일몰의 아름다움에 일출을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석기시대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나타내 주는 패총이라는 조개무덤은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느낄 수 없던 진귀한 경험이었다.

작은 배로 갈아타고 굴업도로 향했다. 유일무이하게 섬에서 민물이 솟아난다는 굴업도는 마치 두 섬이 갈라진 듯 붉은 듯한 신비한 모습이었다. 섬자체가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굴업도는 천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숨은 보석과도 같은 섬이었다. 덕적도 면장님과 함께 매운탕을 먹었는데, 정승문 면장님은 내가 외국인이라 매운것을 먹지못하리라 생각하여 지리와 매운탕 두가지를 주문하셨지만, 나는 매운탕의 생선과 얼큰한 국물을 더 맛있게 먹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수제비라는 것은 참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맛이었다. 후에 나는 그 생선이 미국인이 먹지 않는 장어였다는 것에 정말 놀랐다. 장어라고하면 먹지않을까봐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든 나는 장어매운탕을 맛있게 먹었다.

한반도 역사의 산 증인

살아있는 역사교과서 강화도. 강화도는 아마 선사시대의 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한반도 역사의 산 증인일 것이다. 아름다운 숲들 사이로 가지런히 뻗어있는 깨끗한 도로들, 섬 속의 호수, 광활한 갯벌과 높은 산, 해변 등 없는 것이 없는 강화도는 어느 한 곳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여러 개의 고인돌부터 단군이 제사를 지냈다는 마니산의 참성단 그리고 호국의 상징들인 수많은 진, 보 등에서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한반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섬이다.

300년의 역사를 가진 캐나다 오타와에 밀랍으로 역사적 사건과 생활사를 재현한 커다란 문명박물관이 있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의 특산물이라는 인삼을 젤리로 맛보았다. 씹싸름한 독특한 향기를 가진 인삼의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초콜릿의 씹쌀한 맛과는 사뭇 다른 특별한 향기를 지니고 있었다.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 세계적 명물인 인천대교, 국제도시의 중심지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가 어우러진 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마치 우주공항 같은 느낌이 드는 건축조형에 놀라게 되고, 다음에 초현대식 공항 내부의 시설과 조경에



놀란다. 공항을 나서면 멋진 LED 전광이 색색으로 변하는 '비상'의 의미를 담은 조각물이 반겨준다. 서해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워주고 서해임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은 뽀니뽀니 해도 일몰의 장관일 것이다.

미국과 한국, 한 역사 공유

나는 낙조를 보기위해 일몰이 가장 아름답다는 을왕리해수욕장을 가보았다. 피서철이라서 그런지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낙조를 보기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일은, 마치 뉴욕 5번가에서 주차하는 것 만류이나 어려웠다. 주차공간이 생겨서 주차를 하고 내려보니 많은 사람들이 석양을 기다리며 낚시를 하고 있었다. 하늘밑으로 점점 가라앉는 해는 물에 닿자마자 바닷속으로 너무 빨리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붉은하늘과 붉은바다, 먼 바다를 가로질러 내 발 바로 밑까지 닿은 붉은 빛은 여기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 견어가 버렸다.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해가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고 나서도 하늘에 남은 붉은 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사라진 붉은 낙조의 순간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문화의 거리 월미도. 나는 월미도가 섬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도시의 연장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서로 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인 자유공원과 맥아더장군의 동상은 나에게 이 섬에 대한 친근감을 더해 주었다. 이 곳은 나의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을 위해 들어오셨던 곳으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로운 곳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은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국제교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월미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바다와 항구와 도시의 풍경은 색달랐고,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의 전망대에서 보는 광경을 연상케 해주었다.

올 여름방학에도 다시 인천으로 가 환상적인 자연 속에서 서해의 낙조를 즐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들뜬다.

인천의 말 목장 이야기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라는 옛말이 있지만, 인천에도 말 목장이 있었다. 지금도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 지역에는 조선시대 군사용 말을 방목했던 마성(馬城)과 마장(馬場)의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좋은 품종의 말 생산지로 유명하여 강화 매도목장의 ‘사자황’이라던가 진강목장의 ‘벌대충’은 왕이 탔던 우수한 명마로 알려져 있다.

글 강옥엽 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인천은 해안과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어 말을 사육하기에 여건이 매우 좋았다. 조선시대에 말목장(소목장 포함)은 대부분 섬이나 해안지역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서울과 가까워 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편리하고 또한 말을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좋은 수초(水草)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섬으로는 제주도가 목장 수에서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인천으로 자연도·삼목도·용유도·무의도, 강화의 진강장·매도, 옹진의 장봉도·신도 그리고 교동의 송가도에서 말과 소를 사육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인천군의 자연도는 제물량 서쪽, 수로로 30리에 위치하는데 사방 둘레가 25리에 국마 358필을 방목하고 있으며 수군과 목자(牧子)·염부(鹽夫) 등 30여 호가 있었다. 삼목도는 자연도 옆에 위치하는데 사방 둘레가 45리에 수군·목자·염부 등 30여 호가 있었으며 조수가 빠지면 자연도 목마(牧馬)가 서로 내왕하였다. 용유도는 삼목도 서쪽 5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방 둘레가 23리에 국마 59필을 방목하고 수군·목자 등 20여 호가 있었다. 무의도는 서쪽 수로로 1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방 둘레가 25리에 국마 92필을 방목하였으며 경작지와 염전이 없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삼목도 목자가 내왕하면서 말을 돌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목자는 과중한 직책과 가혹한 부담을 안고 있던 신랑역천(身良役賤)의 특수계층이었다. 목장을 설치하여 말을 사육한 것은 교통, 군사, 외교, 산업 등 다양한 용도를 위한 것이었지만 나라의 중요한 것은 군사요, 군사의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태종실록』의 기록처럼 주로 군사상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 이래로 각 국은 국력을 기울여 말의 사육에 주력하였는데 고려에서는 태복시(太僕寺)를, 조선은 사복시(司僕寺)를 설치하고 양마(養馬)에 힘썼다. 그 가운데 강화도의 진강목장은 진강산과 길상산을 축장(築場)하여 1천500필의 국마를 사육하였는데 규모에 있어 제주도 다음가

는 목장으로 양란 때에 우수한 전마(戰馬)를 보급하던 곳이다. 특히, 효종 때 북벌계획의 일환으로 우량 마종을 방목하고 전마 확보에 힘을 기울였는데 효종이 아꼈던 벌대충(伐代驄)은 그런 북벌의 의지를 담은 명마로 유명하다. 또 효종이 볼모에서 풀려나 심양관에서 돌아올 때 청나라 황제가 말 한 필을 내어주면서 진강목장에서 산출한 말이니 함께 돌아가라고 했는데, 효종이 그 말을 타고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하자 말이 날아서 먼저 건너 후 간 곳이 없었으므로 비로소 신종임을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강화의 매도목장 역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태조 이성계가 탔던 8준마(駿馬) 가운데 일곱 번째인 ‘사자황(獅子黃)’을 산출한 목장으로 유명하다. 사자황은 태조가 고려 우왕 6년(1380)에 지리산에서 왜구를 토벌할 때 탔던 명마로 알려져 있다. 영흥도 목장의 경우 『목장지도(牧場地圖)』에 따르면 말이 119필, 목자가 281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 규모는 당시 전국 53개 처의 목장(제주지역 제외) 가운데 마필수로는 20번째, 목자수로는 3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였다. 옹진군의 북도면 장봉1리 독바위 일대는 1454년경 설치되어 1895년 경 폐장된 장봉목장이 있던 곳이다. 말문(馬門)고개를 중심으로 산 중턱과 골짜기에는 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석성을 해안까지 쌓았는데 현재도 성터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북도면 신도 3리에 조성되었던 신도목장은 말 90필 정도가 방목되고 있었는데, 정조 9년(1785) 강화의 길상목장을 폐장하고 그 목마를 신도목장으로 옮겼던 것으로 봐서 조선후기까지도 중요한 목장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목장은 임진왜란 이후 폐지 또는 축소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임진왜란 중 남방 목장의 반 이상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 선조 27년(1594)에 40여 개 소가 폐지되고 말을 보급한 목장은 제주도 목장을 비롯하여 강화의 진강·신도·장봉도·매음도 등 25개소뿐이었다. 전란 중 우수한 전마를 보급한 곳은 진강과 가도가 유명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을 겪은 후 목장을 폐쇄한 곳이 73개 소에 달하였는데 인조와 효종이 목장을 부활시키는 등 마정(馬政)에 힘썼지만, 전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 목장을 경작지로 활용하지는 여론과 목자들의 가혹한 부담으로 인한 회피, 유망, 도살 등으로 조선후기로 오면서 목장은 전폐하고 말았다. 이와는 별개지만 인천은 1883년 개항과 더불어 개항장에 각국조



1 지도에 나타난말 목장 2 접역도 속의 인천과섬 3 목장터 현재 모습

계지가 조성되고 이들과 관련된 각종 근대시설과 다양한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국제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지금의 송학동 3가 7번지 타운센드 상회 부근에 있었던 우예노(上野)목장은 젖소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인천 최초로 근대식 시설을 갖춘 젖소목장으로 알려져 있다. 임해공단과 공장들로 인해 자칫 산업도시로 인식되는 인천에 바다 가까이 펼쳐진 언덕 위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말들을 위한 목장과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진 내 고장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정 다이제스트



PGA뉴송도시티 챔피언십 9월3일 개최

올 가을, 인천에서 유명한 골프선수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송도국제업무 단지에 건설 중인 잭니클라우스GC에서 '2010 PGA 뉴송도시티 챔피언십'을 열기로 PGA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 상금은 1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PGA투어가 열림에 따라 잭니클라우스GC 코리안은 스타급 선수유치와 VIP마케팅 등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는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디자인했으며 골든베어로 상징되는 그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내 유일의 골프클럽이다. 한편 시공을 맡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연면적 5574㎡ 규모의 클럽하우스는 60%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2011년 가동

인천 서구 오류동 일원에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는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배후에 각각 조성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개발 승인은 물류시설법 제22조에 의거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가,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는 경기도가 맡는다.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총 사업비 3천600억원이 투입되어 116만㎡ 규모로 조성되며,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터미널, 집배송센터, 창고 등의 시설과 가공·포장 시설과 연구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함께 조성돼 복합 물류기능 및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물류단지는 경인아라뱃길 전체 사업 기간에 맞춰 201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문의: 항만공항물류국 ☎ 440-4818



영종 주민 인천대교 통행료 3월부터 지원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주도로인 인천대교 통행료가 3월부터 1천900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에 따른 내용으로, 3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 동안 지역주민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영종하늘도시가 위치해 있는 영종도는 물론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옹진군 북도면(신도, 시도 장봉도, 북도) 등에 주민등록지를 둔 주민들은 현재 받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1일 1회 3천600원·왕복 7천200원)과 동일한 수준의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통행료가 5천500원인 만큼 3천600원을 뺀 1천900원만 내면 된다.

문의: 인천대교주) ☎ 745-8281

시정 다이제스트



용유·무의 관광레저복합도시 본격 개발

인천국제공항 서측에 있는 용유·무의지역 관광레저복합도시가 본격 개발된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이곳에 오는 2020년까지 관광·위락·레저·업무·쇼핑 등이 복합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해 말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최대 프로젝트인 용유·무의 복합도시 개발은 사업부지 면적이 24.4km²이고, 기반시설 조성비만 10조2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마리나를 포함한 해양·레저시설과 테마파크, 위락·숙박시설, 호텔·리조트, 교육·문화시설 등을 두루 갖춰 마카오, 홍콩, 상하이를 뛰어넘는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제청은 용유·무의 복합도시가 조성되면 연간 3천만명의 방문객과 50조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도시개발본부 ☎ 453-7615



자유공원 리모델링 3월 20일 완료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중구 송학동 자유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3월 20일 완료된다. 이 사업은 총 8억8천700만원을 들여 공원 바닥 포장재를 교체하고 전망데크, 야외무대,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중구는 지난해 바닥 포장재 교체를 끝냈고 올해는 인천항과 인천 앞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데크, 각종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 방송실을 갖춘 예정이다. 또 도심의 깨끗하고 안락한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도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중구 도시녹지과 ☎ 760-7592



인천경제자유구역 버스노선 대폭 확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영종과 청라지구를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대폭 확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대교 개통, 송도 유비쿼터스시티 복합환승센터 개통을 계기로 147개로 늘려 운영해온 버스노선을 올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유비쿼터스시티 환승센터를 경유해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시내·외 버스를 현재의 11개 노선에서 49개 노선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시외버스 노선은 현재 7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또 영종대교를 통과해 인천 도심과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시내·외 버스도 123개 노선으로 증설되고, 청라지구에는 시내버스 5개 노선과 수도권 연계 광역버스 1~2개 노선이 추가로 확충될 예정이다.

문의: 건설교통국 ☎ 440-3952



美 CEWIT, 송도국제도시에 한국 분원 개소

세계적 무선정보통신 기술융합소인 미국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CEWIT의 분원인 'CEWIT KOREA'가 지난 2월 23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한국 분원(CEWIT KOREA) 개소식을 가졌다. CEWIT(Center of Excellence in Wireless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미국 뉴욕주가 출자하고, 뉴욕주립대 스톤브룩분교가 운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무선·정보통신 연구소다. CEWIT 한국 분원은 30여 명의 연구인력을 갖추고 무선, 정보통신 분야 연구프로그램 등 국내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5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영

장애인콜택시가 1월 8일부터 심야운영을 확대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오전 6시30분 ~ 밤 12시30분 사이에만 이용할 수 있어 심야시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교통공사의 24시간 확대운영으로 언제든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 이용요금, 이용방법은 주간과 동일하며, 교통공사는 향후 이용추이를 고려하여 운행대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인천교통공사 ☎ 1577-0320



국제공공디자인대상 7개 부문 수상

우리가 '국제공공디자인대상 2009(International Public Design Award 2009, IPDA 2009)'에서 대상 1개, 최우수상 3개, 우수상 3개 등 7개 부문을 수상했다. '국제공공디자인대상 2009'는 한국공공 디자인 지역지원재단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후원한다. 대상인 기획재정부장관상에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정거장의 공공디자인(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상세계획(인천경제자유구역청)'등이 선정되었다.

문의: 도시디자인추진단 ☎ 440-4764



세계 첫 로봇테마파크, '인천로봇랜드'

세계에서 처음으로 로봇 테마파크인 '인천로봇랜드'가 조성된다. 오는 2013년까지 로봇 태권브이 등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파크와 연구단지·배후지원시설 등이 조성된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는 영종하늘도시와 오는 2014년 개통 예정에 있는 제3연륙교로 연결되는 청라지구 5블록 76만7천㎡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7천845억 원(국비 595억 원, 시비 595억 원, 민자 6천655억 원)이다.

문의: 로봇랜드 ☎ 1544-6644



연수여고 이은별, 올림픽 은메달

‘GO! KOREA!’

올림픽이 끝났지만, 이은별의 미니홈피는 여전히 밴쿠버로 향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어린 나이지만, 세계 선수들과 겨뤄 당당히 은메달을 획득한 이은별의 미니홈피는 온통 쇼트트랙 시합과 훈련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가득하다.

154cm, 46kg의 작은 체구의 이은별은 지난달 21일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천500m 결승에서 2분17초849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면서 인천에 동계올림픽 첫 메달을 선물했다.

엠티 얼굴의 이은별은 2007년 전국남녀주니어선수권 여자부에서 1천m 금메달 등 종합 3위에 오르며 국내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듬해 이은별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 여자부 1천500m 은메달과 함께 종합 2위를 차지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어 연수여고 3학년이던 지난해 2009~2010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에서 1천m와 1천500m에서 은메달을 수확했고, 여자 3천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주목받았다.

이은별은 지난 2월18일 열린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500m에서도 대표팀 중 유일하게 준결승까지 올랐고, 이날 1천500m에서 은메달을 거머쥘었다.

이은별의 은메달 획득은 인천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는 커다란 일이다. 동계 스포츠 불모지인 인천에 안겨준 첫 동계올림픽메달이기 때문이다.

밴쿠버동계올림픽 출전선수 83명 가운데 인천선수는 이은별이 유일하지만, 다음 올림픽에는 더 많은 인천선수들이 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418개 기업 입주

지난해 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국내외 연구소, 유엔연구소 등을 포함해 모두 418개소이며 종사자는 3만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은 274개 업체에 종사자는 3만506명이며, 외투기업은 64개사에 종사자가 2천826명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연구소 72개소와 외국투자연구소 4개소 등 76개 연구소에 2천29명이 근무하고, 유엔방재연구소 등 4개의 유엔기구가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송도지구의 경우, 지식정보산업단지에 16개 기업 1천181명, 테크노파크에 131개 기업 3천271명이 입주했으며 영종지구는 인천공항과 공항물류단지 내 243개 기업에 2만9천8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5



제180회 임시회 폐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80회 임시회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돼 2월 3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가지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인천시와 일본 코베시 간의 자매결연안’, ‘인천시 기본경관계획안’ 등도 통과시켰다.

또한 ‘2012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인천유치 건의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정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채택했다.

박승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 개의직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취소에 따른 진단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고, 각 상임위별로는 해당 부서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시의회 회기일정 128일로 확정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80회임시회 기간인 지난 1월 28일 2010년도 시의회 회기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는 8회, 60일 개최하고, 정례회는 2회, 68일을 개최해 총 128일간의 회기를 운영기로 했다. 시정질문은 제182회 임시회, 제186회, 제188회 정례회에서 이뤄져 2010년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위원회는 이어 의회사무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해 도입되는 ‘회의 수화통역서비스’ 준비를 철저히해 효과적인 청각장애인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수화통역 서비스’는 모든 시민에 평등한 정보제공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수화통역사가 본회의에 직접 참관함으로써 방송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수화 동시통역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 청각장애인의 방청이 가능해져 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자치관련 법령 등 입법정책 자료 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당부했다.

시의회, 적십자회원유공자 금장 수상

인천광역시의회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사업 발전 기여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1월27일 ‘적십자회원유공자 금장’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숭고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하고 많은 관심을 갖는 등 적십자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추진하는 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청소년활동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회비를 기부하여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화구역개발특위 제5차 회의 열어

인천광역시의회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사항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비즈니스고, 인천체고의 이전이 늦어지면 도화구역 주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므로 시, 도개공, 교육청이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 발생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과 대책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 등의 소상공인들이 집단 산단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줄 것과 보상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의 사항 등에 관하여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제181회 임시회, 군구의회 선거구 확정안 통과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18일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초 30개구의 기초의원선거구를 40개로 늘리는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다.

이날 시의회는 남구 선거구를 기존의 4개구에서 3개늘린 7개 선거구로, 2개 선거구인 연수구를 2개늘린 4개 선거구로, 부평구도 2개 늘린 7개 선거구로, 서구는 1개 늘린 5개 선거구로, 용진군은 1개 늘린 3개 선거구로 확정했다.

UN기후협약총회 유치 건의안 제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3일까지 열린 제180회 임시회에서 201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인천유치를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건의하게 된 배경은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인류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온난화 문제는 남극과 북극의 해빙 현상을 촉발되고 있으며, 세계도처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어 이는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전 인류의 생사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에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이 ‘201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개최의 최적지임을 강력히 건의했다.

시의회는 201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인천유치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제18차 당사국 총회를 유치해 ‘포스트(Post)-2012기후변화 대응체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인천 유치를 강력히 건의하고 이를 청와대, 환경부, 시본청에 전달하여 인천시민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이스트자바주 ‘지방거버넌스과정’ 참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이 주관한 ‘지방거버넌스 과정’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이스트 자바(East Java)주 지방의원들이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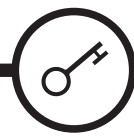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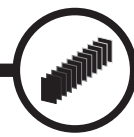
방문인원은 사브론 자밀(Sabron Djamil)법사행정위원장을 비롯한 35명으로 지방의원 19명, 인도네시아 공무원 6명이다.

지방거버넌스 연수과정은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지방행정 강의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의회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의원방문단은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시정 홍보영상물을 시청했으며, 양 도시간의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방문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시의회 의장단은 인천의 발전상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인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인도네시아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가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는 면적 4만403km², 인구 3천340만명으로서 농업과 제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쌀 생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신흥공업 및 무역 등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0 인천아시아이주민 축제로 오세요

아시아이주민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 인천아시아이주민 축제로 오세요.

- 주제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아시아와 하나되는 인천'

- 행사명 : 2010 인천아시아 이주민축제
- 행사일시 : 3월 21일 (일) 10:00 ~ 17:00
- 장소 : 인천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일대
- 축제내용

프로그램명	시간	내용
체육행사	10:00 ~ 16:30	- 농구대회 - 풋살대회
어울림 마당	12:00 ~ 17:00	- 아시안 마을, 포토월 - 아시안 푸드존 - 정보 박람회
공연 및 공식행사	14:00 ~ 15:00	- 식전행사: 다문화 풍물단 길놀이 - 시상식: 모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부문 - 모범 외국인 근로자 다큐멘터리 상영 - 기념사·축사
아시안 스테이지	15:00 ~ 17:00	- 아시아 정기저랑 - 축하공연: 아시아 어린이 합창단 - 축하공연: 아시아 인기가수 3팀
아시안 사생대회	13:00 ~ 16:00	- 아시아 이주민 사생대회
부대행사	12:00 ~ 17:00	- 기업 홍보부스, 기념품 지급 외

- 문의 : 시 고용정책과 ☎ 440-4273

4랑해요! 우리가 그린(green) 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이 개관 4주년을 맞아 환경을 주제로한 아외공연과 체험행사를 엽니다.

- 일시 : 3월 20일 (토) 14:00 ~ 17:00
- 장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 대상 : 누구나
- 내용 : 4주년 기념식, 야외공연,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놀거리, 먹을거리), 환경책 및 환경물품 전시
-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먹을거리와 바퀴 드립니다.
- 문 의 : 부평기적의도서관 ☎ 505-0612~3, bpml.or.kr

인천시립박물관에서 활기찬 봄 보내세요

인천시립박물관의 금년 시민강좌의 주제는 '한국사 미스터리, X파일' 로, 3월에 열리는 세 번째 미스터리는 '독도문제 제대로

알기'입니다.

- 한국사 미스터리, X파일 '독도문제 제대로 알기'
 - 일시 : 3월 6일 (토) 14:00 ~ 17:00(매월 첫째 주 토요일)
 - 주제 : 독도문제 제대로 알기
 - 강사 : 호사가 유지 (세종대학교)
 - 장소 : 인천시립박물관 1층 대강당 석남홀
- ‘우리가족 박물관 가는 날’ 3월의 진행 프로그램은 ‘나만의 태극기 만들기’입니다.

- 우리가족 박물관 가는 날 '나만의 태극기 만들기'
 - 일시 : 3월 27일 (토) 10:00 ~ 12:00
 -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3층 해넘이방
 - 대상 : 회당 가족 20팀
 - 재료비 : 교육당일 현장 구입 (1만원 내외)
 - 신청기간 : 3월 23일 (화) 09:00~3월 25일 (목) 18:00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museum.incheon.go.kr, 박물관교육 → 수강신청)
-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박물관교육 담당 ☎ 440-6736

문화예술로 리더십과 자신감을 키우세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지역청소년에게 리더십을 키우고 자기표현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주세요.

일 정	내 용
3월 1일~3월 13일	지원신청서 접수
3월 17일~3월 20일	인터뷰 및 선발
3월 23일~7월 22일	오리엔테이션 매주 화·목오후 6:30~8:30 : 연기·화술·노래·무용 체험프로그램 둘째 주 토요일(오후 2:00~6:00) : 스토리텔링+토론회
3월 27~8월 31일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지역생태문화답사 (3/27_계양산, 4/24_원적산, 5/29_관모산, 6/26_인천 중·동구 개항장 일대, 7/31_송도 갯벌, 8/28_영종도)
8월 1~8월 31일	여름방학 연극 워크샵
9월 3일~4일	연극공연
9월 6일~9월 30일	시나리오+자료정리 (스토리 구성 및 시나리오 작법, 인터뷰부터 공연까지 기록물 정리)
10월 1일~30일	영상편집 및 발표 (영상편집 수업 및 동영상 제작)
11월 30일	자료집 발간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인천시 청소년 15명
- 접수방법 : playcampus@gmail.com 이메일 접수, 플레이캠퍼스 웹사이트 www.playcampus.com → 공공사업 → 플리프로그램 신청서 다운로드 → playcampus@gmail.com
- 접수 및 인터뷰 기간 : 1차 신청서 3월 1일~3월 13일

- 2차 인터뷰 3월 17일~3월 20일(1차 합격자에 한함)
- 참가비 : 월 5만원 (월 개근 시 익월 참가비 면제)
- 문의 : 화수청소년문화의집 ☎ 762-7942
(playcampus.com, dreamyouth.kr)

국선도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세요

인천시청 내 체력단련실에서 시민건강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선도는 정신수양과 육체적 건강을 함께 가꾸 신체의 균형회복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운동입니다.

- 모집기간 : 연중
- 대상 : 인천시민, 학생 등
- 장소 : 인천시청 내 체력단련실
- 시간
 - 새벽반 05:30, 06:30
 - 오전반 10:00, 11:45
 - 오후반 14:00
- 수강료 : 3만원
- 문의 및 접수 : 사범 이정연 ☎ 010-6747-5114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세요

인천 서부권역 여성전문교육기관의 요람, 서부여성회관에서 2010년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기간 : 4월 5일 (월) ~ 6월 25일 (금)
- 교육장소 : 인천 서구 석남동 325번지 서부여성회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일부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은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남성도 모집
- 접수시기
 - 우선 모집 : 3월 2일 (화) ~ 3월 12일 (금)
 - 일반 모집 : 3월 15일 (월) ~ 3월 17일 (수)
 - 결과 발표 : 3월 19일 (금)
 - 추가 모집 : 3월 22일 (월) ~ 3월 31일 (수)
- 모집방법
 - 우선모집 : 직접 방문 접수 (중빙서류 지참)
 - 모집인원 : 전 과정 과목별 정원의 30% 이내
 - 모집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일반모집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홈페이지 미구축 시 직접 방문 접수
- 추가모집
 - 개강전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모집 시 선착순 선발
 - 개강 후 14일 이내 과목변경 및 미달과목 방문접수
- 모집과정 : 자격증취득, 취업창업, IT, 어학, 웰빙건강, 취미·교양, 주말가족 등 8개 과정 1천 248명
- 수강료 : 무료특강을 제외한 전과정 유료
- 문의 : 서부여성회관 교육팀 ☎ 458-7360~4

장난감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장난감 무료 대여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6개소의 장난감 무료대여점이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 인천시 장난감 무료대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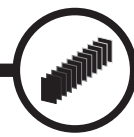
구분	도당도당 장난감 빌드 (1호점)	도당도당 장난감 빌드 (2호점)	도당도당 장난감 빌드 (3호점)	도당도당 장난감 빌드 (4호점)	토이토리 (도당도당 빌드)	드림 스타트 센터
위치	남동구 구월동 예술회관역	계양구 작전동 작전역	연수구청 의회 1층	강화군 어린이체육관 2층	중구 을목동 11-79	동구 송림동 57-2 신협빌딩5층
장난감 보유 규모	장난감 등 6천744점	장난감 등 5천571점	장난감 등 7천810점	장난감 등 401점	장난감 등 2천점	장난감 등 250점
대여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운영 시간	목·금·토 10:00~19:00 화·수 10:00~20:00	목·금·토 10:00~19:00 화·수 10:00~20:00	월·금 10:00~19:00 토 10:00~17:00	화·토 10:00~19:00	평일 09:00~18:00 토 09:00~13:00	월·금 10:00~17:00
전화 번호	433-7833~4	552-7833~4	552-7833~4	934-4828	766-0198	770-6842

- 이용자격 :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인천시민 누구나
- 이용방법 : 연회비 1만원으로 장난감, 도서, 동영상 등을 언제든지 무료로 대여 받을 수 있음
-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894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합니다

우리 전통가락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곳, 인천예총국악회관에서 제29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좌기간 : 3월 22일 (월)~6월 12일 (토)



- 접수기간 : 2월 22일(월)부터
 - 접수방법 : 방문, 홈페이지, Fax, 전화접수
 - 강좌내용 : 가야금, 대금, 단소, 피리, 거문고, 해금, 태평소, 민요·장구, 판소리, 모듬북, 풍물, 한국무용
- 더불어 알립니다. 국악문화학교에서 '제7회 국악사랑 발표회'를 여니,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 일시 : 3월 20일(토) 오후 3시
 - 장소 : 인천문화회관 소극장(수봉공원)
 - 내용 : 민요, 판소리, 가야금, 해금, 대금, 한국무용, 사물
 - 문의 : 국악문화학교 ☎ 876-8364-5, Fax 032-876-8367, kukakhall.co.kr

여성복지관에서 심리검사 받으세요

여성복지관 상담실에서는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하여, 적합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평가해 드립니다.

- 기간 : 연중
- 방법 : 사전 예약, 당일 검사 후 결과 및 해석 제공
- 검사비 : 무료
- 검사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성격유형검사(MBT)	· 개인의 선호성을 측정하는 성격유형 지표로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선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검사
이그그램검사(EGOGRAM)	· 개인의 언어, 음성, 태도, 표정, 자세, 행동 등을 통해 나타나는 성격검사
문장완성검사(SCT)	·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및 환경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투사검사
HTP그림검사	· 나무-집-사람 그림검사로 개인의 성격과 정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투사검사
우울증 검사(BDI)	· 우울증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표준화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 자신에 대한 가치감, 자신감, 신뢰감을 측정하는 표준화 검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선별검사(ADHD)	·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충동성 등의 증상이 의심되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자기보고식 검사
부모양육태도 검사	·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양육태도와 부모 개인의 심리적 요소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

- 문의 : 여성복지관 가족지원팀 ☎ 434-6436, 7

인천시 노인종합문화회관 문 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종합문화회관'이 준공·개관합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길 바랍니다.

- 개관 일시 : 3월 25일(목) 14:00
- 장소 : 노인종합문화회관 (남동구 간석동 55-1 신명여고 인근)
- 시설현황

- 규모 : 부지 5천 158㎡, 연면적 1만 884㎡
- 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주차대수 50대)
- 주요시설 : 수영장 등 체육시설, 물리치료실, 식당, 교육·상담실, 강당 등
- 주요사업 : 건강증진, 평생교육, 후생복지, 소득지원
- 문의 : 시 노인정책과 ☎ 440-2813, 시설관리공단 ☎ 715-6500

시대가 필요로하는, 당당한 여성이 되세요

인천시 여성의광장에서는 전문 취업상담사가 무료로 취업상담을 하고 일자리를 연계해 줍니다. 여성의 광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세요.

- 운영 : 주 5회(월~금 13:00~17:00) 연중 운영
- 상담 방법 :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
- 문의 : 인천여성의 광장 1층 취업상담실 ☎ 440-8966, wp.incheon.go.kr

미추홀도서관 문화예술 행사에 흠뻑~

겨울잠이 끝나고 새싹이 돌아나는 3월, 미추홀도서관에서 준비한 영화의 세계에 푹 빠져보세요.

- 제목 : 3월 테마영화 상영
- 일시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소 : 미추홀도서관 지하1층 강당
- 관람료 : 무료

날짜	제목	시간	장르
3월 6일(토)	댄서의 순정	14:00 ~ 15:50	드라마
3월 7일(일)	별주부 해로	14:00 ~ 15:30	애니메이션
3월 13일(토)	하이스쿨뮤지컬3	14:00 ~ 15:51	뮤지컬
3월 14일(일)	밀리언즈	14:00 ~ 15:34	코미디
3월 20일(토)	빌리 엘리어트	14:00 ~ 15:50	드라마
3월 21일(일)	도라에몽	14:00 ~ 15:55	애니메이션
3월 27일(토)	헤어스프레이	14:00 ~ 15:55	뮤지컬
3월 28일(일)	포카혼타스	14:00 ~ 15:21	애니메이션

※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미추홀도서관 ☎ 440-6625

미혼모·부자 든든히 지원합니다

미혼모·부자가 임신 초부터 출산, 양육까지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주요 사업 내용

- 자녀 출산·양육과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비 지급 및 생필품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 미혼모·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조 모임 운영 지원
- 공공 또는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

■ 문의 :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지원 사업 담당 ☎ 569-1547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탐방객 모집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새아침공원 내 생태교육관, 솔찬공원 내 자연학습관에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시 : 3월~11월

- 평일 : 오전 10:00 ~ 11:30, 오후 15:00 ~ 16:30
- 토요일 : 오전 10:30 ~ 11:30, 오후 14:00 ~ 15:00

■ 접수방법 : 예약확인 후 전화접수

■ 프로그램 내용

구분	프로그램	1주	2주	3주	4주	1일 정원	대상	비고
3월	겨울눈(winter bud) 관찰	o	o			60	6-12세	
	공원의 봄꽃 관찰하기			o	o	60	6-12세	새아침공원
	송도국제도시 조류탐방			o	o	60	누구나	
4월	공원의 봄꽃 관찰하기		o	o	o	30	가족단위	주말
	솔방울 인형만들기	o	o	o	o	60	6-12세	
	공원의 봄꽃 관찰하기	o	o	o	o	60	6-12세	해돋이공원
	송도국제도시 조류탐방			o	o	40	누구나	
	곤충 관찰하기	o	o	o	o	20	8-15세	
5월	공원의 봄꽃 관찰하기	o	o	o	o	20	가족단위	주말
	함께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자연	o	o	o	o	20	장애인	전화상담
	식물이야기(토끼풀)	o	o	o	o	60	6-12세	
	공원의 봄꽃 관찰하기	o	o	o	o	60	6-12세	미추홀공원
	송도국제도시 조류탐방	o	o	o	o	40	누구나	
6월	곤충 관찰하기	o	o			20	8-15세	
	공원의 봄꽃 관찰하기	o	o	o	o	20	가족단위	주말
	함께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자연	o	o	o	o	20	장애인	전화상담
	갯벌이야기	o	o	o	o	60	6-12세	
	개개비(조류) 관찰하기	o	o	o	o	60	6-12세	
6월	식물이야기(토끼풀)	o	o	o	o	60	6-12세	
	세시풍속놀이(달팽이놀이)	o	o	o	o	20	가족단위	주말
	함께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자연	o	o	o	o	20	장애인	전화상담

- 예약확인 : ifez.go.kr → IFEZ 즐기기 → 교육안내

- 문의 : 생태교육관 전화예약 ☎ 453-7975

시민 여러분을 객원기자로 모십니다

우리시는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아시아 허브로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로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시는 시정소식지〈굿모닝인천〉, 인터넷신문〈incheon@news〉, 그리고 인터넷방송 등 종합미디어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상과 비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실 객원기자를 모집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5명의 객원기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인터넷신문 창간 5주년을 맞아 추가로 객원기자를 모집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자격조건 :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

- 접수기간 : 4월 5일(월)~4월 15일(목)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반명함판 3×4cm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 기명 기사 사본(있는 분만)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정각로 25 공보관실 뉴미디어팀(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직접방문 : 인천광역시 공보관실(4층)
- E-mail : goodvoice@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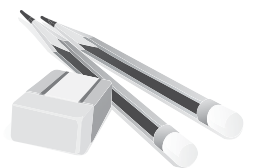
- 선발방법

자체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서류전형, 면접)를 거쳐〈굿모닝인천〉5월호 및 시 홈페이지〈새 소식〉란에 발표할 예정

- 선발된 객원기자들은 인천의 구석구석 이모저모를 취재해〈굿모닝인천〉, 인터넷신문〈incheon@news〉등의 지면에 기명으로 기사를 게재합니다.

※객원기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채택 시)를 지급하며,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문화공연 등에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공보관실 뉴미디어팀 ☎ 440-8302~6



지금도 기억나는 내 짝꿍 이야기

✉ 30년 전, 내 친구는 어디에



입김이 하얗게 서린 유리창 처럼, 희미하게 기억나는 친구가 있다.

나는 가난했던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1년 늦게 진학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학교생활을 해 동기들의 미움도 많이 받았다.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는 나와 형제이상으로 가까이 지냈다. 여름방학 때 나와 친구는 달랑 기차표 한 장을 들고 무전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싸움을 하면 며칠씩 서로 모른척하며 지내기도 했다. 내 결혼식 함 들어오는 날에는 친구가 함재비가 되어, 처갓집 앞에서 처남 친구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 후로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친구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헤어진 지 벌써 30년. 문득, 친구가 웃음пен 얼굴로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고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올 것 같다. ‘보고 싶다, 친구야...’.

김성수 · 서구 마전동

✉ 내 곁의 가장 좋은 친구

“덜커덩” 나의 작은 짝꿍 전동휠체어의 난스러운 반항이다. 큰 짝꿍 수동 휠체어는 창고에 모셔둔 채 자기만 고생시킨다는 푸념이 보통을 넘는다.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나와 짝꿍이 된 수동 휠체어를 6년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여섯 살 어린 동생을 구입했다. 전동휠체어다. 이때부터 할일이 적어진 큰 짝꿍 수동 휠체어는 창고 안으로 모셔졌다. 동생 짝꿍인 전동 휠체어는 차별 대우가 심하다고 불평이다. 평지에서는 잘 가다가도 급경사에 들어서면 “이 때다!” 하고 속력을 다해 달린다.

오늘 밤에는 비가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항상 마당에 주차시켜 놓았던 작은 짝꿍을 창고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창고 안에서 편히 자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큰 짝꿍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폭삭 늙어 있었다. 그 모습에 작은 짝꿍은 깜짝 놀라며 앞으로는 큰 짝꿍을 잘 모시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 고맙다 큰 짝꿍아, 작은 짝꿍아! 앞으로도 내 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렴.

박명선 · 서구 석남1동

✉ 내 사랑 내 짝꿍

짝궁하면 한 친구가 떠오릅니다. 그 친구와 저는 바로 아파트 앞동에 살아 등하고 길을 항상 같이 다녔고 학원도 함께 다니, 사귀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고 사이 좋게 친구는 반장, 저는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때 정말 못 말리는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쉬는 시간과 수업시간의 경계 없이 친구와 떠들다 선생님께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별로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짝꿍이 씩 웃으면서 제 옆에서 두 손을 들고 앉는 게 아니겠어요?“아~넌 왜 나왔니?”라고 물으니, 친구는 “같이 놀았는데, 내가 없으면 너 심심할까봐”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벌을 서면서도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간 친구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영관아 잘 지내? 난 잘 지낸다. 보고 싶다, 친구야.”

김상진 · 부평구 부평1동

독자로부터 온 편지

✉ 나의 새로운 터전, 인천

〈굿모닝인천〉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재취업으로 남동공단에 터잡은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이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인천은 참 정감이 있는 곳입니다. 올 한해 인천시가 계획하는 것들 특히 인천경제자유역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승 · 남동구 고잔동

✉ 희망을 심어 준 〈굿모닝인천〉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굿모닝인천〉을 구독하면서 인천에도 좋은 관광지와 볼거리가 참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로운 정보도 많이 접합니다. 〈굿모닝인천〉 2월호를 통해 사이버 강좌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조소현 · 부평구 갈산1동

✉ 인천을 널리 알리길

전철안에서 〈굿모닝인천〉을 처음 만나,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인천시민뿐 아니라 전국각지의 사람들이 〈굿모닝인천〉을 통해 명품도시 인천을 가슴에 새기길 바

랍니다. 또 애독자로서 〈굿모닝인천〉이 인천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좀더 깊숙이 알고, 매월 전시·공연 소식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창섭 · 남동구 간석1동

✉ 딸도 함께 봐요~

매월 보내주시는 〈굿모닝인천〉 잘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 딸도 〈굿모닝인천〉을 함께 읽으며 인천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굿모닝인천〉에 자랑스러운 인천 이야기를 한가득 담아주세요~

조효숙 · 계양구 계산1동

✉ 늘 그리운 인천

인천을 떠난 지 30년이 된 지금,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끔 인천에 가면 나날이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숙현 · 성남시 분당구

✉ 가족 모두의 기쁨

지하철 한 칸에서 우연히 발견한 〈굿모닝인천〉. 처음에는 지하철에서 심심해하던

저에게 즐거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매달 〈굿모닝인천〉을 보며 인천에 살고 있어도 모르고 있던 곳을 알고, 또 직접 찾아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김경실 · 부평구 부평2동

✉ 친구들이 잘 있니?

〈굿모닝인천〉에 나온 인현동 거리를 보며 옛 생각에 잠기며 행복했습니다. 인현동 거리는 신학기가 되면 문구와 참고서를 사는 아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친구들과 인현동에서 책을 사고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그 때 그 시절을 지면으로 만나 반가웠습니다. 단발머리 여고시절 친구들 모두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겠지요?

유기연 · 연수구 옥련동



다음달 테마는 ‘소풍’입니다.

‘소풍’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2매). 책에 글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5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6)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마감은 3월 22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격려에 힘입어 늘 최선을 다하는 〈굿모닝인천〉편집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인천시인터넷방송(tv.incheon.go.kr)과 인천시인터넷신문(enews.incheon.go.kr)도 사랑해 주세요. 인천에 대한 소식과 정보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축
장
원

민우야~너도 커서 모델할래?

얼마 전 백화점에 쇼핑을 갔는데, 마침 한 매장 무대 위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며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모델들 옆에서 포즈를 잡았습니다. 아들에게 모두 시선집중! 이날 쇼는 대 성공이었습니다!

이혜은 · 연수구 연수3동



어흥~ 저, 멋지죠?

작년 학교 수련회에서, 선생님께서 물감으로 호랑이 페인팅을 해주셨습니다. 어흥~ 저 멋지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은석 · 남동구 구월동



날씬한 몸매를 위해 스트레칭을!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발레강사입니다. 친구들과 강화도에 놀러갔을 때, 버스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넘치는 끼를 펼쳐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날씬한 몸매를 위해 스트레칭하세요.

고현지 · 남구 관교동



월미도 모델!

우리 아이들과 조카아이들을 데리고 월미도로 놀러갔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했더니, 멋진 포즈를 취하네요. 여러분들도 인천의 명소로 봄나들이 가는 건 어때요?

김옥금 · 연수구 동춘동



꽃도 찍어주세요

소래생태 공원에서 나들이 나온 가족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몰래 남긴 것을 저 가족은 알까요?

전순복 · 서구 연희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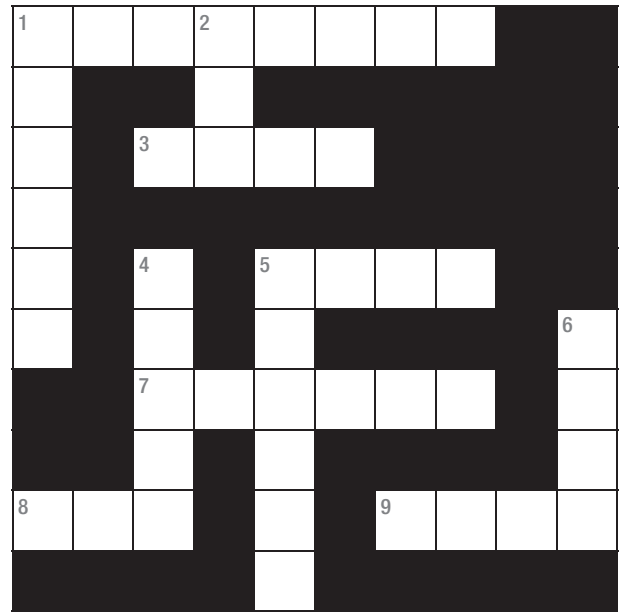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롭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CROSSWORD PUZZLE

인천바로알기 퍼즐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인천바로알기 퍼즐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로열쇠

- 1.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의 대표 문화예술 공간이자 인천 예술의 요람.
- 3. 중구 답동에 있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당. 인천시 사적 제287호.
- 5.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
- 7. 세계화에 따라 높아지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 우리나라 최초의 인천○○○○○○.
- 8. 인천시의 교육을 관할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인천시 ○○○.
- 9.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포구. 매해 10월 향토문화축제가 열리며,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찾는 새우젓으로 유명한 당일 코스 관광지.

세로열쇠

-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 동북아의 허브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자랑.
- 2. 여름이면 생각나는 ○○○세숫대야냉면. 동구에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냉면거리.
- 4.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경찰의 중앙본부.
- 5. 중구에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다.
- 6.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푸른 보석이라 불린다.

※ 채경진(남구 용현동) 독자님께서 문제를 작성하여 보내주셨습니다.

※ 2월호 퀴즈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하여 알립니다.

- | | | | | |
|----------------|---------------|----------------|---------------|---------------|
| 하민정 · 연수구 연수1동 | 박혜진 · 서구 가좌1동 | 조금석 · 부평구 청천2동 | 이경분 · 중구 신흥동 | 이기승 · 남동구 고잔동 |
| 민경화 · 용인시 수지구 | 장 훈 · 구리시 수택동 | 조윤희 · 연수구 원인재길 | 김숙연 · 계양구 효성동 | 김정화 · 부평구 산곡동 |



독자글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점과 인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인천바로알기 퀴즈에도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도 환영합니다. 책에 글과 퀴즈가 실린 분께는 문화상품권(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은 1매, 퀴즈정답 응모는 매월 열분을 추첨하여 각 1매, 퀴즈문제 작성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단, 퀴즈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보내주실 곳 :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5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6)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3월 22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봄, 봄, 봄이 왔어요~

Korean



A: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B: 네, 3월 달력을 마주하니 마음이 새롭네요.
A: 봄을 맞아 새로운 계획이 있으세요?
B: 네,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외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A: 멋진데요. 저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날이 더 따뜻해지면, 인천대공원으로 봄나들이를 가려고요.
B: 좋은데요.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랄게요.
A: 네. 저도 뜻 하는 바, 모두 이루길 바랄게요.

English



A: Long winter has passed and spring has finally come.
B: Yes, it is simply refreshing to face the march calendar.
A: Do you have any new plans for this spring?
B: Yes, I'm going to start exercising again and study foreign language harder.
A: That's great. I'm going to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If it gets warmer, we're going to go to the Incheon Grand Park.
B: Good idea. I hope you make unforgettable memories with your family.
A: Thank you, I hope for the best for you too.

번역 Jehni Kim 인천영어마을 강사

Chinese



A: 漫长的冬天过去了，春天终于来了。
B: 是啊。看着三月的日历心中有了新感觉。
A: 迎春有什么打算?
B: 有啊。重新开始运动，还要努力学习外语。
A: 真不错。我要跟家人一起度过更多的时间。
 天气暖和后，准备去仁川大公园春游。
B: 很好啊。希望你跟家人一起留下美好的回忆。
A: 好。我也祝你万事如意。

번역 김성은 중국어마을 강사

Japanese



A: 長い冬が去り、いよいよ春がきました。
B: はい、3月のカレンダーを目にすると新たな気持ちになりますね。
A: 春を迎え新しい計画がありますか?
B: はい、運動をまた始めて、外国語の勉強ももっと一所懸命しようと思います。
A: すごいですね。私は家族と一緒により多くの時間を過ごそうと思います。
 暖かくなったら、仁川大公園にピクニックに行こうと思います。
B: それはいいですね。家族と一緒に良い思い出を作ってください。
A: はい。私もあなたの願いがみんな叶うことをお祈りしています。

번역 김지영 시 국제협력관실 감수 나카무라 카츠야

하늘 가까운 곳에서 ‘인천의 기적’을 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에서 세상을 내려다본다. 하루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을 보며, 상상을 현실로 일군 인천의 기록을 본다. 그 곳에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하늘로 비상하는 인천이 있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68층, 305m 높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연면적 15만5천㎡에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영된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 65층에 있는 전망대가 지난 2월 24일 임시 개관했다. G20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을 찾는 VIP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알리고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임시 개관한 것이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현재 7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동북아트레이드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전망대는 사전 예약한 단체관람객에 한해 부분적으로 개방한다. G